

딤전 강해 1: 디모데전서 개요: 교회란 무엇인가?

딤전3:14-15

오늘부터 디모데전후서 강해를 시작하려 한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책들 구절구절

강해,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맥잡기 등, 성경 자체 강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다. 교회란 무엇이고 목사 집사 등 교회의 리더들, 성도들이 어떻게 지역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완결판

오늘 < >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이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서 유래하였다(1:2).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다(행14:5-6; 16:1).

디모데 뜻: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는 루가오니아의 더베나 루스드라 출신으로(행16:1; 14:6)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딤후1:5; 3:15). 그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회심하였고 주의 군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도 바울이 몇 년 뒤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곳의 형제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사도는 그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유대인들로 인해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행16:3).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를 섬기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딤전1:2; 딤후3:10-11). 바울은 그를 아들로 형제로 불렀고 또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연합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롬16:21; 고전4:17; 골1:1; 딤전1:2, 18). 그는 복음 선포 중에 옥살이도 한 것으로 보인다(히13:23). 후에 바울은 그를 에베소에 남겨 두어 자기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하였다(딤전1:3; 3:14). 그는 바울을 확신하고 사랑하였으며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행16:1; 17:14-15; 18:5; 19:22; 20:4; 딤후3:10; 4:5)

기록 목적: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 것

내용: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를 사역자로 남겨 두고 떠났으며(딤전1:3) 후에 이 젊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조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 사도는 그가 자기의 교리와 생활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할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한 사도는 교회의 유일한 두 직분인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 가르치며 과부를 돌보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목사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도는 목사들을 위한 모델 편지로서 이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성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디모데전서는 6장, 113절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3:15)

디모데전서 개요

I. 교회와 그 메시지 (1장)

- A.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 - 1:1-11
- B. 복음을 선포함 - 1:12-17
- C. 믿음을 수호함 - 1:18-20

II. 교회와 그 구성원들 (2-3장)

- A. 기도하는 남자들 - 2:1-8
- B. 복종하는 여자들 - 2:9-15
- C. 자격 있는 목사들 - 3:1-7

- D. 자격 있는 집사들 - 3:8-13
- E. 경건하게 행하는 신자들 - 3:14-16

III. 교회와 그 사역자 (4장)

- A. 말씀을 전하는 선한 사역자 - 4:1-6
-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역자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역자 - 4:13-16

IV. 교회와 그 사역 (5-6장)

- A. 연로한 성도들에게 - 5:1-2
- B. 연로한 과부들에게 - 5:3-10
- C. 젊은 과부들에게 - 5:11-16
- D.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 5:17-25
- E. 종(노예)들에게 - 6:1-2
- F. 거짓 교사들에게 - 6:3-10
- G. 목사에게 - 6:11-16, 20-21
- H. 부자들에게 - 6:17-19

교회란 무엇인가?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목회란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디모데전후서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본질적 정의: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살과 뼈다 (골 1장, 엡 5장)
-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자 남편이 되신다
- 교회는 주님의 유일한 신부이고 주님도 교회의 유일한 신랑이다
-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행 20:28)
-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2. 교회의 구성:

-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 1:2)
-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 (고전 12:12-13)
-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3.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성경적 진리

A. 논쟁의 배경과 양극단

첫째 견해: 우주적인 교회만 인정하는 입장

-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전체"라고 주장한다
- 교회를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 예수님이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견해: 지역교회만 인정하는 입장

-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특정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지역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다.

지역교회의 회원이 아니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腼티스트 브라이드"같은 강성 "지역교회주의자들"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과 개념이 모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한다

참된 교회는 오직 지역교회이며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안에 속해 있어야만 하고, 지역교회에서만 침례를 받아야 하며, 지역교회를 떠나면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B. 성경적 진실: 두 개념 모두 성경적이다

중요한 사실:

"성경에는 "지역교회(Local Church)"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개념은 모두 성경에 나온다

(1) 우주적인 교회의 성경적 증거:

성령침례를 통한 한 몸

성경은 믿는 자들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한다 (고전 12:13)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닌 성령침례다

어느 특정한 지역교회에서 주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같은 물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같은 성령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끝없는 영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엡 3:20-21)

성경은 영광이 교회에 끝없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던 교회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데살로니카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베가모 교회, 빌립보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교회만 주장하면 안 된다.

(2) 지역교회의 성경적 증거:

특정 지역의 교회들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행 11:22)

건물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四分領主)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행 13:1)

바나바와 유대인식 이름을 가진 니게르와 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종이나 국적을 상관하지 않았다

유럽 출신인지 소아시아 출신인지 아프리카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는지(바울) 헤롯과 함께 교육을 받았는지(마나엔)도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교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나온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

II. 지역교회만이 할 수 있는 실제적 사역

A. 함께 모이는 것

실제적인 모임: 안디옥 교회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행 11:26)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려면 특정한 지역에서 모여야 한다

"인터넷 교회"는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읽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실제로 모여야 교회로 모인 것이다

주의 만찬과 애찬:

"그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고전 11:20-22)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유기체인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지역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B. 선교와 사역 보고

선교사 파송과 보고: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행 14:27)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한다" (행 15:4)

이 본문들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돋고 지원하기: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행 15:3)

지역교회는 할 수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한 지역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헌금과 구제: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고전 16:1-2)

이것은 특정한 지역교회에 주신 명령인 동시에 전체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

C. 감독들의 목양 사역

특정 지역의 양떼를 돌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다" (행 20:17)

바울은 에베소 전 지역에 있던 장로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한 교회(단수)에 있던 장로들 (복수)을 부른 것이다

장로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일하며 특정한 지역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병자를 위한 기도: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약 5:13-14)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의 장로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다

D. 권징과 분쟁 해결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 6:1-4, 7)

성경은 구원받은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대립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마 18:15-17)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은 그들이 속한 지역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을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특정한 장소에 모인 특정한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E. 예배와 질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임: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전 14:23)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다 한 곳에 모여"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에 언제나 모여 있기 때문이다

III. 균형 잡힌 성경적 교회론

A. 우주적인 교회의 특징

본질적 속성: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

성령침례로 한 몸에 연합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

영원히 존속하는 교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 교회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항상 성령님으로 침례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에는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다

B. 지역교회의 특징

정의와 구성:

특정한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교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교단이나 건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른 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나뉘고 모여서 만났다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church at such and such)"라는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등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나와 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지만 동시에 지역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교회든 우주적인 교회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IV. 결론: 균형과 진리

A. 양극단의 위험

우주적인 교회만 강조하는 오류:

지역교회의 실제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모임과 섬김을 경시하며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흐른다.

→ “나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니 지역교회는 필요 없다”는 잘못된 생각.

지역교회만 강조하는 오류:

교파주의 · 분파주의로 빠지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무시하며 배타적 교만에 빠진다.

→ “우리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비성경적 태도.

B. 성경적 균형의 필요성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그 교회는 여러 지역교회들로 나타난다.

C. 실천적 적용: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충성되게 참여해야 한다.

우주적인 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역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지역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배척해서도 안 된다.

D. 최종 결론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모두 존재한다.

이 둘은 모두 성경적이며, 하나만 강조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교회란 항상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 규모나 위치와 상관없이.

회원 자격의 원리: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 거듭난 자들만이 참된 구성원이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 어떤 교회의 진정한 회원도 아니다.

E. 핵심 메시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3:14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는 것은

(3:15)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14-15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딤전 강해 2: 목사는 굳건히 서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딤전1:1-4

3주 전에 디모데전후서 강해를 시작하였다. 딤전후는 목회 서신, 즉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 주는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오늘부터는 딤전 1장 강해 시작.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강해 페이스를 정하기 위해 어떤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 너무 자세히 강해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대충 하다 보면 강해 설교로서의 의미가 희석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강해 설교를 위해 마련된 <위어스비 목사님의 주석>을 참고서로 삼고 맥아더, 매튜 헨리, 반즈 등의 주석과 나 자신의 이해를 모아서 약 1년에 걸쳐 디모데전후서를 설명하려 한다. 왜 1년? 이 안에는 교회, 목사, 집사, 성도, 구원, 성화, 재림 등 성경의 다양한 주요 주제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한 바에 의거하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디모데전후서 강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강해 설교 시리즈가 될 것이다.

딤전 1장은 교회와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목사가 주로 전한다. 그래서 오늘 <>, 목사의 책무인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나도 많이 배운다. 그것이 배움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한다.

디모데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일들

위어스비, 맥아더 등이 홀륭한 설교자, 타고난 설교자라는 것은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예화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어스비의 설교 시작 전 예화를 소개한다.

지금부터 120년 전쯤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위험한 여행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보수는 적고, 혹독한 추위와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과 끊임없는 위험이 앞에 있으며 따라서 안전한 귀환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성공할 경우에는 명예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수천 명의 남자들이 지원했다! 그 광고를 낸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 경이었다. 바로 이런 탐험가의 요구 조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새클턴은 1901년부터 1922년 남극 근처 킹조지 섬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남극을 탐험하였다.

1914-1917년 세 번째 탐험에서 새클턴과 27명의 대원은 얼음 위에 고립된 채로 1년 반 이상 생존 투쟁을 벌였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 대원 중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됨.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끌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신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실 것이다.

“나의 교회를 세우는 어려운 일을 할 목사/리더를 구함. 이 일을 하는 동안 동역자들조차 너를 종종 오해할 것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 원수, 사탄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너는 네 수고의 열매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네 온전한 보상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주어질 것이다. 목회 사역은 네 집, 네 야망, 심지어 네 생명까지도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런데 새클턴의 광고 결과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 힘든 일인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모두 드리며 그분께 “지원서”를 내밀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신자가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딤전3:1, 본인이 원해도 임명은 교회가 한다.

디모데

디모데전후서의 수신자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젊은이 중 하나였다. 그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조력자 중 한 사람이었다. 디도와 함께,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들을 맡았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며(딤후 1:5),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 불렀다(딤전 1:2).

디모데는 혼혈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았고,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바울의 선교 팀에 합류했다(행 16:1-5). 바울은 종종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 사역을 위해 선택받았음을 상기시켰다(딤전 1:18; 4:14). 디모데는 주님께 신실하였으며(고전 4:17),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빌 2:20-22).

하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며, 영적 선물(은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쉽게 낙담하는 성향이 있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그곳의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권면했다(딤전 1:3).

이 시점 두 견해, 1. 사도행전 20장, 2. 사도행전 28장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채(행 28:30-31)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때는 대략 AD 60-62년경이다. 그 후 바울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의 기록은 바로 이 시기 이후의 사역을 반영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는 바울의 권고(3절)는 아마도 주후 62-63년경에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디모데는 3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육체적인 질병(딤후 5:23)과 함께 종종 낙심의 시기를 겪은 듯하다. 또한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의 연소함으로 인해 그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딤전 4:12; 딤후 2:6-8).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약 3년간(행 20:31) 사역하며 강력한 복음의 중심지로 세운 곳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적 가르침(딤후 1:3-7; 4:1-3)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 그래서 에베소는 결코 목회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다. 그 도시는 당시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였고 에베소는 다이애나(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유명했는데, 그녀는 성적 본능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다이애나 신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큰일을 이루었고, 그 결과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행 19:10)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런 위대한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사탄은 그 도시에 자기 일꾼들을 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다(고전 16:8-9).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지역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지역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몇 가지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딤후 1:1-11)

목사는 행정가, 사업가, 정치가, 상담가가 아니다.

목사는 엡4:11-15, 11절 목사 겸 교사,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한다. 목사(Pastor), 말씀의 꿀로 먹이고 물을 주는 자, 교사(Teacher),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

바울과 디모데의 권위(1-2)

1절: 서신의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진 권위를 분명히 밝혔다.

바울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다.

바울은 “사도”(apostle), 곧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 보내신 자였다.

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commandment)에 의해 주어졌는데 명령이라는 단어는 본래 “왕의 위임(royal commission)”을 뜻한다.

2절: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름, 영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 줌. 그래서 디모데를

괴롭히던 사람들은(교회 내 성도들), 자기들의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즉,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만왕의 왕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들임을 보여 주려 하였다.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3)

3절: 목사들과 리더들이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바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들을 빗나가게 하여 자기들의 주장과 목적에 끌어들이려 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를 하라고 하였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에게 명령을 주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군사적 언어를 사용했다(딤전 1:3).

“명하라”(Charge)는 말은 본래 “상급 장교가 내리는 엄격한 명령”을 뜻한다.

바울은 디모데전 · 후서에서 이 단어(혹은 ‘명령’)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딤전 1:3, 5, 18; 4:11; 5:7; 6:13, 17; 딤후 4:1).

그 의미는 이렇다: “디모데야, 너는 단지 목회하기 어려운 도시의 목회자가 아니다. 너는 왕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 이 명령을 교회의 다른 군사들에게도 그대로 전하라!”

명령의 내용(3-4)

1.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령하라.

어떤 것이 다른 교리인가?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은 다 다른 교리이다. 딤후 2:2

목회 서신(딤전후, 딤)의 특징: 교리(doctrine) 가르침(teaching), 교사(teacher), 가르치다 (teach) 등이 30여 번이 나온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 교리를 바울과 디모데, 디도 등으로부터 철저히 배웠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강단과 찬양대가 계시와 진리의 자리보다 오락과 감정의 자리가 되어 버렸다. 감성팔이 설교와 꽉꽝대는 음악, 신비주의, 상담, 드라마, 연극 등

목사도 성도도 교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2. 그들이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명령하라.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 사도들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들의 제자들과 랍비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 사이에 생사를 건 영적 투쟁이 계속되었다. 바울의 목회서신에 나오는 간절한 경고들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다음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그는 유대인들의 신화들과 랍비 교사들의 주석들이 새로 세워진 교회들의 가르침 속에 섞이게 된다면,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점 축소되어, 유대교의 좁고 배타적인 한 종파로 전락할 것임을 명확히 내다보았다는 것이다.

꾸며낸 이야기는 fable, 이솝 우화

꾸며낸 이야기는 유대인 랍비들의 쓸데없는 미신이나 공상

이런 이야기들은 가볍고 근거 없는 꾸며낸 전설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들을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섞어 넣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미신들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신앙을 부패시키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우리 영혼의 원수 사탄 마귀가 사용해 온 가장 교묘한 술책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

진리 속에 거짓을 섞는 것.

그는 진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때, 거짓되고 가벼운 것들을 섞어 넣어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족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파/족속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철저하게 족보 기록을 보존했다.

세월이 흐르며 이러한 족보 표들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끝없는 족보(endless genealogies)”라고 부르는 것도 과장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세심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고, 유대 민족의 제도적 체계도 끝나게 되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런 족보상의 구분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붙들 이유는 전혀 없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족보 중심의 체계는 기독교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혈통과 출생의 자랑을 유지시키는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과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질문만 던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4절)을 방해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끝없는 논쟁이 일어났다(4절).

디도 역시 크레타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딛 1:14; 3:9).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찾으신다.

힘든 일이지만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일이다.

목사가 해야 할 일: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해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고전 13장 말씀

이런 선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딤전 강해 3: 목사의 설교 목적과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

딤전1:5-11

지금 디모데전후서 강해. 딤전후는 목회 서신, 즉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 주는 말씀, 지난주 1:1-4 딤전 강해 2, 바울의 권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이다. 교회는 진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모임이다. 당시 다른 교리는 주로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과 가르침, 1. 유대주의자들의 믿음 + 행위(할례 등 구약식 규례 등), 2.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4)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세워 주지 않고 논쟁만 일으킨다(4).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한다.

오늘 딤전 강해 3, < >,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목적,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 설명

바울의 명령의 목적(5)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다짜고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해야 한다고 말한다(3). 그리고 3절에서 명하는 것을 5절에서 분명히 명령이라고 말한다. 군사 용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어떤 분들은 5절의 명령이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앞뒤 문맥상 여기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기보다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명 곧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목사의 말씀 선포/가르침의 사명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령의 목적은 크게 사랑이다.

5절: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여기의 사랑은 charity이다. KJV만 품고 있는 귀한 단어

그리스어 아가페를 번역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고귀한 단어
고전8:1부터 계2:19까지 총 28번

고전8:1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고전14:1 사랑을 따르라

고전16:14,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계2:19,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안다

딤전1:5, 2:15, 4:12(3회), 딤후2:22, 3:10(2회) 딤2:2

우리 교회 이름, Charity Baptist Church

고린도저서 13장은 사랑(charity)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므로 늘 읽어 보기 바란다.

고전13:4-7

따라서 설교 및 가르침을 통해 명령하는 일의 참된 목적은 사랑이 무엇이지 알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즉 사랑은 설교자가 일하며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또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결과이다.

이런 설교와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넣는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마22:36-39

핵심: 그런데 이런 목적은 결코 사람들이 혓된 이야기나 쓸데없는 질문/답변을 듣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논쟁만 일으킨다.

이런 사랑이 나오는 데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

1. 이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자기의 야망이나 포부를 이루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2. 이런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양심이 죄로 인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삶,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양심은 심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시리즈 중에 한 번 다시 설교할 것이다.

3. 이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

이 사랑은 진실한 믿음에 뿌리내리고 그 믿음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확고히 동의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4. 이런 사랑을 알고 이루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전파를 맡은 목사/교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목적이다.

5.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꾸면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만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쓸모없는 사상과 논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는커녕 분쟁과 다툼만 낳게 된다(4절).

사실 그런 가르침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6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자들(거짓 교사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6절)는 말은, 여기서 이것들은 복수, 즉 어떤 자들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벗어나”는 목표에서 벗나가다,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설교나 복음 선포를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의 복음 선포/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교회에 논쟁만 일으켰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6절의 “헛된 말다툼(vain jangling)”이 나온다.

이 말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말, 건설적 열매가 없는 잡담을 뜻한다(딛1:10 참조).

결국,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논쟁과 헛된 말다툼이 된다. 감성팔이, 신문 이야기, 자기 일상생활 등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적, 한계, 효용성

6-7. 거짓 교사들의 문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7). 즉 목사와 교사가 되기를 갈망한다(desire). 그러나 보니 그 결과는 성도들을 은혜가 주는 해방의 자유(갈 5:1)에서 율법주의의 속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갈5: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명예에 얹매이지 말라.

이런 비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육신(옛 본성)은 율법주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마음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아도 겉으로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교회, 주일 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등 외적인 모양에 치중한다. 믿음의 척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 문화가 성도들을 이런 것들의 속박 속으로 밀어넣는다.

거기에 빠진 성도들은 우월감과 자기만족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하신 율법주의를 부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와야 한다.

즉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주변 사람들, 목사를 의식하면 안 된다.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다.

딤전 1장이 보여 주는 율법의 목적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니다. 8절 우리가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러려면 율법의 제정 목적, 한계, 효용성을 알아야 한다.

딤전1:9-10절이 제정 목적을 말한다.

목사와 교사들은 반드시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율법은 의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자들 득 악행을 하는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여기의 율법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 특별히 악행을 하는 자들의 명단을 보면 율법 중 도덕법을 명기한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다. 앤버트 반즈의 명쾌한 주석: 율법의 목적은 의로운 자들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자들을 속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은 두려움과 속박의 마음을 만들어 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들은 율법을 끝없는 규칙과 의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을 자유에서 속박으로 몰아넣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지적할 때 바로 이런 율법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가르침 전체의 경향은 사람의 영혼을 속박의 상태로 끌어들이는 것, 즉 신앙을 노예의 의무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를 가르쳤다. 그는 신약 시대의 신앙이란 자유의 상태라고 말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수많은 의식과 규례로 얹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종교이다), 죄인들을 죄로부터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한 사람은 결코 전전한 법 때문에 구속당하거나 얹매였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법이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다. 그는 법을 억압으로 느끼며,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악행을 하는 자들의 명단: 9-10, 법을 무시하는 자들부터 무엇이든지 전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십계명의 구조: 1-4, 하나님과의 관계, 5-10 사람들과의 관계

바울의 행악자 명단은 이런 구조를 반영한다.

1.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 처음 네 가지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아식이르 즉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2.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

출20:12-16, 5-9번째 명령

3. 그 밖의 무엇이든지 전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출20:17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

1. 서론 – 율법은 끝났는가?

사람들은 “신약 시대 성도인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율법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이 되면 안 된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며 그분의 성품과 거룩함이 담긴 거울이다.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자신의 의로 삼으려는 데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 한 것을 보며 한탄했다(롬10:1-3).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2. 율법의 목적 – 죄인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첫째,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거울이 보여주지만, 거울이 그 더러움을 닦아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둘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감독 교사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거룩한 목적이다.

3. 율법의 한계 – 구원을 줄 수 없음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
갈 2:16,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완전히 행할 능력은 없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은 외적인 규범일 뿐,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이다.

4. 율법의 효용 –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줌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귀한 역할을 한다.
시편 19편 7-10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삶의 기준이 된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딤전 1:8)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의식법, 시민법 등은 폐기되었지만 십계명의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는 죄의 면허로 착각하게 된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악한 일이다.

5. 율법의 완성 –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은 이 모든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끝마침’(telos)은 ‘폐기’가 아니라 완성, 목적의 성취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율법(도덕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
그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롬 8:4).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삶”(롬 8:4)으로 인도한다.

6. 결론 –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이다.
복음은 율법이 시작한 일을 완성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롬 7:6)

결론

교회 강단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해하고 가르쳐야만 한다.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이것이 설교와 가르침의 목적이다.

또한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십계명(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 준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더욱 더 거룩한 사람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딤전 강해 4: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산 증거 사도 바울

딤전1:11-17

디모데전후서 강해. 지난주 1:5-10 딤전 강해 3, 목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명해야 한다.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 시대 율법 중 의식법, 시민법, 족보, 자기 자랑 등에 매이면 안 된다.

특별히 율법 십계명의 도덕법은 신구약시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다. 구원받으면 더 죄에 민감해져야 한다.

오늘 < > 전전한 교리를 담은 하나님의 복음, 은혜와 긍휼을 담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6-10절 바울은 율법 선생들의 헛된 말장난과 도덕법 폐기 등의 주장에 철퇴를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10절에서 율법의 목적을 말한다. 율법은 십계명의 도덕법을 위반하는 자들과 무엇이든지 전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존재한다.

즉 9-10절에 언급된 행악자들(부모 대적, 살인, 음행, 동성애, 거짓 증언 등), 모든 자를 언급하지 못하니까 한 마디로 그 악이 무엇이든지 전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음

11절: 십계명은 출20(신5)장에 있는데 그러면 전전한 교리는 어디에 들어 있는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 있다.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거룩함, 공의, 사랑, 신실하심, 지혜)의 영광(찬란함, 뛰어남,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 즉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은 당연히 전전한 교리 포함, 당연히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십계명의 도덕법과 복음에 담긴 전전한 교리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일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 구원받으면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롬6:1-2, 12-15, 22절 설명

바울의 개인 간증: 구원과 성화

12-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증언한다.

즉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바꾸는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한 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바울의 간증(행 9:1-22; 22:1-21; 26:9-18 참조)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구원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된다.

1.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13절 전반)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자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극심한 죄인

그는 팝박하는 자, 즉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던 박해자였다.

그는 “위협과 살기를”(행 9:1) 내뿜은 사람이었다. 즉 그의 숨결 자체가 위협과 살기였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행 8:1)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다(행 8:3).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팝박했다(고전 15:9)

바울은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이 단어는 교만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뜻한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그는 “거만한 폭군” 또는 “남을 짓누르는 자”라 할 수 있다.

2. 왜 바울은 여기서 “불신”과 “무지”를 언급할까?(13)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신과 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변명하려는 말이 아니다.

왜? 그는 다음 절(15절)에서 자신을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무지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배울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그 기회를 무시하거나, 진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는 더욱 그렇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스테반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스테반의 지혜를 능히 대적할 수 없었지만(행 6:10), 그가 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행 8:1).

그러므로 불신앙은 바울을 변호해 줄 이유가 될 수 없다.

모든 죄는 무지에서 나오며 또한 불신앙으로 인해 더 악화된다.

바울의 이 표현은 단지 그의 이전 영적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는 눈면 자요, 무지한 열성분자였으며, 믿지 않는 완고한 자였다. 과거의 우리도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궁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었다.

히5:2, “하나님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히 5:2).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궁휼을 베풀셨던 것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까지 생각했다(행 26:9).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롬 10:2).

그러므로 그는 의도적으로 빛과 양심을 거스르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의 무지와 불신앙은 다만, 그에게 주어진 궁휼이 얼마나 풍성한 궁휼이었는가를 보여 주는 증거일 뿐이다.

하나님은 바울이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폭력적인 자로, 무지한 가운데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 그를 붙잡으셨고, 그에게 궁휼을 베풀셨다.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은혜 사이에는 아무런 인간적 공로나 준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유대 율법의 한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레 5:15-19; 민 15:22-31).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다.

그러나 알지 못하여 무지 가운데 죄를 지은 경우, 범법 현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 원리를 적용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눅 23:34)

그들의 무지가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기도 자체가 그들을 자동적으로 구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무지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궁휼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의 예를 보고 “바울도 성도를 박해했으나 나중에 궁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궁휼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무지를 강조함으로써, 깨달은 진리를 고의로 거역하며 죄를 짓는 자는 결코 궁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의 회심은 무지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휼이 일한 결과이지 고의적인 악행에 대한 면허가 아니었다.

13절 그는 과거에 자신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살아 계신 한 하나님 즉 참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믿지 아니한 자”라고 부른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한 하나님인 계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신자이다. 행10의 고넬료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이다.

성육신, 처녀탄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재림까지 가야 한다.

3.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13절 후반~15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의에 빠진 이런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두 단어 — 은혜(grace, 14절)와 궁휼(mercy, 16절) — 에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그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의 복을 주셨고(14)

궁휼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지 않으셨다(16).

은혜 명사만 총 170회, 궁휼 총 276회

즉, 은혜와 궁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의 대가를 직접 치르셨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구원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요 3:16)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엡 2:8-9).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빌 3:1-11).

4.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14)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했을까?

물론 자기 같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은혜니까. 그런데 문맥은 더 큰 것을 보여 준다.

이 구원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딤전 1:15).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인 사울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누구든 구원하실 수 있다!

요3:16,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이다. 누구든지

5.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기 평가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전 15:9),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엡 3:8)라 불렀다.

심지 그는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딤전 1:15)라고 말한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죄임임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했다.

구원받은 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가장 천박한 자들 중 하나가 된다.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며 산다.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그가 자신의 현실의 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 준다.

6. 바울은 구원받은 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12절)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자를 설교자로, 살인자를 선교사로, 교회를 파괴하던 자를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바꾸셨다.

그의 삶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그를 의심하며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행 9:26-3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사역을 맡기셨다.

그는 자신의 소명과 위임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갈 1:11-24),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늘에서 받았다.

높은 부르심(빌3: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풋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7. 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바울이 신실한 자임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유대교 지도자였을 때에도 그는 양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였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아니 신실한 자들만 사용하신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등

고전4:1-2, 신실한 자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는 말.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전 15:10; 빌 4:13).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은 반드시 능력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러므로 목사(리더)가 되기 전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늘 살펴야 한다.

결론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 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의 간증: 구원과 성화의 모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간다(17).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딤전 강해 5: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딤전1:15-17

지난주 1:11-15 딤전 강해 4, 율법의 목적(십계명),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밖의 무엇이든지 전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한 경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경고를 준다.

그러면 전전한 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 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구원과 성화의 모범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 준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간다(17).

오늘 < >,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의 의미, 구원받은 뒤 본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의미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15).

바울의 목회 서신에만 자주 나오는 말: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확실히 믿을 만한 말이다.

딤전3:1, 4:9, 딤후2:11, 딤3:8

계21:5, 22: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3:3), 요한복음에만 25구절

존 길 청교도: 15절은 한 위대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혹시 그것을 믿기 어려워할 사람들을 위해 덧붙여진 것이다. 동시에, 바울이 맡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요약이기도 하며,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혓된 말다툼”(딤전 1:4, 6)에 대한 복음적 반박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일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이 교리는 복음의 본질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실한 말씀”이다. 즉 믿을 만한 말씀이다. 왜 신실한 말씀일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거룩함, 공의, 사랑, 은혜, 궁휼—이 모두 복음 안에서 완전히 신실하게 나타난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아들은 그 사역을 신실하게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으로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신실함과

또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실함이 바로 이 진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 말씀은 참되고 의심할 여지없는 진리이다.

그리스도 자신도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마

9:13)고 친히 말씀하셨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말

그분의 행적과 기적들은 모두 그것을 증언한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진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또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모두가 받아야 할 복음이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두가 전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사랑, 겸손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을까? 유대인들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

게, 장로들이 대언자들에게, 세대를 따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가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진짜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된 참된 하나님을 말씀을 원한다면,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며, 영원히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다.”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은 불확실하고 사람의 말이었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며,
거짓이 전혀 없는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은 모두가 수용해야 할 진리이다(15).

15절 후반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왜 모두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1.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따라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롬 3:23).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2.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이 인류 중 일부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을 만하다”는 말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 일부만을 위한 약이 준비되었다면, 그 사실은 그 일부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약이 모든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가장 깊은 관심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3. 복음의 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죄들의 완전한 용서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궁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요 생명의 상속자로 대우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에서 일어나 창조자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누리게 된다.

벧후1:4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영광스럽거나 공의롭고 은혜로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4. 구원의 본질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왕관이나 금은보화 같은 선물에는 기꺼이 손을 내민다.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천국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다. 이것은 거저 주어진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딤전 1:15)

1. 이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 처년 탄생, 성육신을 통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분은 오실 의무가 없으셨지만, 자발적으로 오셨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휼을 나타내기 위해, 죄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 오셨다.

2.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본보기로 자신을 예로 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즉 유품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은 그가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점에서 볼 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고 자기가 느꼈다는 뜻이다.

특히 그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떠올린다(행 8:1-3).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극도로 팝박했던 일

그런데 나 같은 극심한 죄인이 은혜로 거쳐 구원을 받았다.

그의 구원에 그가 일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의 논리: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3. 왜 그는 자기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라고 현재형을 썼을까?

그는 과거에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성적으로도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롬 7장).

청년 시절의 다소 사람 사울은 외적으로 매우 도덕적인 인물이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빌 3:6, 행 26:4-5).

그러나 회심 후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유품가는 죄인이다”라고 가장 철저히 인정했다.

그는 자기가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품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이다라”라고 말했다. 롬7:18-25, 8:1

4.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악한 삶을 언제나 인정한다.

그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혼 속에 남는 지속적인 확신이 된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경건함이나 성숙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의 부패를 가장 잘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든다.

바울은 단지 사역자만 된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16절)

1. 이런 까닭으로, 이런 목적으로, 목적은 그 뒤에 나온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얻어 구원받은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앞뒤 문맥상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구원이, 가장 흉악한 자도 구원하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에 대한 본보기임을 보여 주려 한다.

즉 나같이 극심한 신성모독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바로 그 일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즉 바울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였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전형적 모델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였다.

2. 그런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 long suffering

여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longsuffering)은 바울의 구원 속에서 특별히 드러난다.

바울은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폭력배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

이 오래 참으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궁휼의 지연된 심판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세상에 증언하셨다.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을 미루시는 사랑이며,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구원의 궁휼이다.

결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간다(17).

17절, 이 구절은 단순한 찬양문이 아니라, 앞선 바울의 간증(1:12-16절)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학적 절정이다.

즉, 이것은 바울이 자신 같은 죄인이 궁휼을 입고 구원받은 일을 회상하다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하며 터져 나온 찬양이다.

따라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요약하는 신학적 고백이다.

1. “영원하신 왕”(the King eternal)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일시적 종교 체계(유대교)와 달리,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선언한다.

바울의 회심은 단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권세가 한 죄인의 마음에 임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속한 율법주의 체제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의 궁หลวง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

2. “죽지 아니하시고”(immortal)

이는 하나님의 불멸성(incorruptibility)을 가리킨다.

바울이 섬기던 율법의 제사제도, 인간 제사장, 성전은 모두 죽음과 부패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3. “보이지 아니하시고”(invisible)

이는 하나님에 물리적 형상이나 제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임을 뜻한다.

율법과 성전 중심의 종교는 보이는 제도에 의존했지만,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한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골 1:15 참조).

4.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the only wise God)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 지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율법의 지식에 정통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지혜로우시다”고 고백하며, 인간의 논리나 공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은혜를 통한 구원)을 찬양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역 교회 혹은 목사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을 제시한다.

1.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2. 복음을 선포하는 것, 3. 복음이 이루는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 바울의 삶은 그 세 가지 사명을 완벽히 증명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이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된다. 고전15:9-10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루는 변화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살피자. 성화에 초점을 두면서

딤전 강해 5 선한 싸움을 위한 무기: 믿음과 선한 양심

딤전1:18-20

지난주 1:15-17 딤전 강해 5, 바울은 극심히 신성모독 하던 자, 교회를 펁박하던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구원받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신실한 말,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 구원과 성화 사역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의 예배이다.

오늘 < >, 구원받은 성도는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싸움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무기가 필요하다. 특별히 양심이 망가지면 구원 이후에도 배도의 길을 가며 파멸에 이른다.

하나님의 명령과 디모데의 책무(18)

12-17절 간증을 마친 뒤 바울은 다시 군사적 언어를 사용해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명사 ‘책무’(charge, 1:18)는 3절의 동사 명하다와 같은 뜻,

“상급 장교가 부하에게 내리는 긴급한 지시”를 의미한다(1:3-4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심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너에 관하여 전에 주어진 대언들’, 성령님의 인도하에 어떤 대언자들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행 13:1-3 참고). 행11:27-28, 행21:8-10

딤전4:14, 그의 목사 임명 시에도 대언으로 주어진 선물이 있었다.

지금 이런 특별 대언(직통 계시)을 구하면 안 된다.

방언, 대언, 통역, 병 고침 등은 AD 90년경 신약 성경의 완성 이후 중지되었다.

지금은 누군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교회가 판단해서 사역자로 세운다.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가득한 이방의 도시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군사’였고(책무 수행자), 따라서 순종해야 했다.

바울의 말: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을 주셨다면 그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이 그에게 어려운 날에도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다.

이러한 확신이 디모데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다(1:18).

선한 싸움(18)

바울은 자기의 사역, 디모데의 사역(목사의 사역)을 종종 싸움으로 보았다.

여기의 싸움은 전쟁(warfare)을 말한다. 딤전6:12, 딤후4:6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자주 전쟁 혹은 승리를 위한 싸움으로 비유된다(고전 9:7).

당연히 모든 신자는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 아래 자원입대한 병사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엡 6:10-17).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 싸움(세상, 육신,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치러야 할 전쟁이다.

목사, 교사, 선교사 등 사역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과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딤후 2:3).

이들의 싸움에는 일반 성도들이 겪는 세상적 유혹 외에도,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거짓 복음과 마귀의 교리와의 싸움이 포함된다.

사역자의 전투는 단지 방어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수호하며, 사탄의 왕국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이런 싸움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영적 무기이며(고후 10:4),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믿음과 충성, 용기와 정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다.

선한 싸움의 첫째 무기: 믿음(19)

그러면 사역자는 성도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할까?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믿음과 선한 양심, 딤전1:5의 반복

첫째 무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진전한 교리 체계를 말한다.

구원의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Christian faith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따라야 할 교리 체계, 복음 진리의 내용

조직 신학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천국, 지옥, 구원과 성화, 교회, 재림 등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자주 이런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딤전 3:9 참조).

‘믿음을 붙들라’(holding faith)는 말은 단순히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1. 사역자는 복음을 숨기거나 일부를 타협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담대히 전해야 한다(행 20:27).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해야 한다.
2. 또한 어떤 압박이나 반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선한 싸움의 둘째 무기: 선한 양심(19)

믿음과 함께 반드시 ‘선한 양심’이 결합되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사람의 양심은 본래 선하지 않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감각을 잃었다.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양심, 즉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다(히 9:14).

이 선한 양심의 결과는 거룩하고 바른 행실이며 특히 복음 사역자에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후 1: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 두 가지 —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거룩한 양심에 따른 삶 — 가 사역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바울은 비유를 군대에서 배로 바꾸며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경고 내용: ‘선한 양심을 불줄지 않으면’ 배가 깨진다.

목회자의 사역이나 성도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 선한 양심 단수

선한 양심을 버리면 반드시 배가 깨진다.

왜 ‘믿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일까?

믿음은 마치 매우 귀한 액체와 같고, 선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깨끗하고 맑은 유리병과 같다.

그러므로 유리병이 깨지면 그 안의 믿음 체계, 성경 지식, 좋은 교리, 킹제임스 성경 등이 다 땅으로
흘러내리고 더럽혀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인이 되려면 양심이라는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 깨지면 20절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된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20)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보인다.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말았다.

구원 이후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름

구원을 잊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간증을 잊음, 구원받는 자들임을 보여 주는 증거

1. 사탄에게 넘긴다. 불신자는 이미 사탄의 수하에 있어 넘기 필요가 없다.
2. 가지고 있던 배가 깨진다. 구원받아 이미 배를 가지고 있다.
3.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다.

사도 바울의 판단: 그들은 징계를 받거나(출교)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 줌

목적: 그들이 교육을 받고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후메내오(딤후2:16-18),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침
알렉산더(딤후4:14), 구리 세공업자, 바울에게 악독한 일을 행함
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이런 사례, 고전5장,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고전5:1,3-5)

또 다른 사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야와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함

바울의 조치: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선한 양심의 중요성

목회자로서 선한 싸움을 하기 전에 내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과 함께 꼭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교회 내의 문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많은 성도들, 목사들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한다”고 말한다.

기억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양심’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내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라고 말한다 해서 선한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정되고 조명 받을 때만 ‘선한 양심’이 된다.

1.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경보 장치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의 기준은 아니다.

즉, 양심은 계기판이다 — 잘못된 정보로 조정되면 잘못된 신호를 낸다.

잘못된 정보는 죄이다. 즉 인간의 양심은 탐욕, 시기, 질투 등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잘못된 신호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누가 봐도 죄를 짓는데도 본인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선한 양심은 자기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 정화된 양심을 의미한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판단하고(히 4:12),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선한 양심’이다.

3. 양심의 객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으느니라.(히 4:12-13)

우리의 양심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떠난 “양심의 평안”은 자기기만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양심이 말씀의 빛에 의해 조명된 양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시는 분”(히 4:13)이시기 때문이다.

선한 양심의 실질적 기준

-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계시된 진리의 원칙과 반대되지 않는가?)
- 이 일을 하려는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가? (고전 10:31, 골 3:23)
-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확증하시는가, 아니면 경고하시는가? (롬 9:1)
- 이 일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 형제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롬 14:21)
- 나는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행 24:16)
- 따라서 단순히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고백이 참된 선한 양심의 증거다.
-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행 24:16)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의 성경적 기준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초지일관 동일해야 한다, 집. 직장, 교회에서
위선자가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 1. 특히 자기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내가 투명한가?
2. 세상 상식에 비추어 내가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결론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각 지역 교회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리와의 싸움 속에 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8:44)로서 모든 거짓 교리의 근원이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거짓을 폭로하고 마귀의 교리를 대적해야 한다(딤전 4:1).

균형 잡힌 사역의 중요성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이 성장하게 해야 하고(딤전 1:10),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하며,
믿음을 지켜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성도의 임무 혹은 사명은 오직 하나이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를 세우며, 믿음을 지키는 일.”

이 세 가지와 관계없는 일은 버려야 할 것들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본래의 사명보다 ‘부차적 활동’에
너무 얹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영적 점검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바쁘게만 움직이고 있는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딤전 강해 7
주일 예배의 필수 요소:
남자 형제들의 합당한 기도

딤전2:1-8

지난주 1:18-20 딤전 강해 6, 목사든 성도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의 두 무기는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은 마치 매우 귀한 액체와 같고 선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깨끗하고 맑은 유리병과 같다. 선한 양심 유리병이 깨지면 그 안의 믿음 체계, 성경 지식, 좋은 교리, 킹제임스 성경 등이 다 땅으로 흘러내리고 더럽혀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오늘 < >, 딤전 2장은 선한 싸움의 구체적인 두 요소를 말한다. 하나는 기도, 특히 남자들의 기도, 다른 하나는 여자들의 복종,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책무와 교회의 책무를 잘 보여 준다.

왜 딤전 2장을 기록했을까?

딤전후는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목사에게 보낸 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주고 있다(약 3년 간 직접 목회함). 서신서들은 노련한 사역자 목회자 바울이 직접 쓴 것이다.

그는 30여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에베소 등에서 2-3년씩 목회를 함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함
교회 활동, 운영에 대한 그의 충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고전 14:40)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예배와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불순종으로 첫 사랑을 잃은 교회(계2:4-5)
위어스비(1929-2019), 무디 교회 담임(1971-1978), 대단히 훌륭한 목사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는 침례교회, 성경 신자들의 모임의 많은 사람들의 주장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조직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마음대로 질서 없이 해도 되지 않는냐?”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가 말해 주는 사실

“그러나 유기체가 무질서해지면 죽는다. 물론 성령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일하시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성령님의 자유’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실제로는 성령님을 따라 견지 않는 어떤 성도들의 육신적 생각일 때가 많다.

결국 이런 ‘자유’는 교회의 무질서로 변하고,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 결국 교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교회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의 영적 책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첫 부분은 1-8절은 주로 남자들, 9-15절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

남자들—기도하라는 권면(2:1)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은 공예배 혹은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을 ① 말씀 사역, ② 기도에 두었다(행6:4).

1장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신의 사도 직무와 복음의 중요성 설명했으며,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가 신실하게 수행하라고 격려했다.

즉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1장에서 말하였다.

이제 바울은 2장에서 공예배의 두 번째 요소인 기도로 넘어가면서 권면을 시작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속의 부담이 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해진 기도문을 보내지 않았다.

만일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이 반드시 한 형식에 뚫여 기도해야 한다고 의도했다면 그는 분명히 정식 문구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가지 큰 기도 범주만 제시한다.

✓ 간구, ✓ 기도, ✓ 중보, ✓ 감사

바울이 이렇게 큰 제목만 제시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미 성경이라는 기도의 기준이 있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를 촉진하는 것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엡 6:18).

또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 ‘무엇보다 먼저’(first of all)의 의미

이 표현은 단순히 “아침 일찍, 다른 일보다 먼저 기도하라”, 혹은 “설교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식의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의도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의 우선순위이다. 말씀 사역 혹은 선포 다음에 네가 말해야 여러 가지 중에 이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니 너와 에베소 교회가 공예배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일은 올바른 기도이다.

◆ ‘모든 사람을 위해’(for all men)의 의미

모든 사람에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포함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 동시에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2:1).

2절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성도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 형제자매, 친구와 지인, 우리가 사는 도시와 국가의 모든 주민, 나아가 원수들, 박해자들까지 즉, 사회 모든 계층 —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 모두 포함한다.

즉 공예배 기도에는 이런 포괄적인 대상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요일 5:16).

또한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네로 같은 박해자나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 자체에 대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모든 계층 · 민족 ·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 공 예배 중 기도의 네 가지 요소: 바울은 공예배 기도를 네 가지 단어로 구분한다.

1) 간구(Supplications)

구체적인 필요, 부족함, 재앙의 제거 등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육체적 필요(의식주)뿐 아니라 영적 필요(용서, 은혜, 화평, 위로)까지 포함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혜와 힘이 부족한 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를, 방황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인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의 궁зал에 맡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기도(Prayers)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원 전반을 의미하며 기도 자체의 거룩함을 강조한다.

즉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저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결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주께 합당한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주의 뜻 안에 묶어 두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 중보(Intercessions)

다른 사람을 위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억울함을 아뢰거나, 남에게 닥친 재앙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의미도 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주 앞에 나아가 중보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불드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지킬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백성이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4) 감사(Giving of thanks)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모든 기도에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빌 4:6).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살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를 깨우시며,

하루하루를 불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은혜 모두가 주로부터 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 목사의 목회 기도 등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려면 공적 기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문을 써서 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미리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공적 기도를 생동감 있게 하며, 그저 지난주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한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기도하려면 마음이 하나님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마 6:5). 그저 종교적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도

안 된다. (*)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리즈로 하려고 한다.

여하튼 교회가 기도 의존을 멈추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한 축복을 멈추신다.

특별히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2:2).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공예배에서.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성품과 정책에 따라 국가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공의롭고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왕의 영혼이 농부나 종의 영혼보다 본질적으로 더 귀한 것은 아니지만, 수천, 수만 명의 삶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 단순히 공직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들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그들의 태도와 선택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도록, 또 그들이 바르고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극도로 악한 통치자였지만,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직분은 존중해야 한다(롬13장).

1.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주여, 그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2. “주여, 그의 불의한 정책과 악한 계획을 막아 주옵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일을 좌절시키소서.”

3. “주여, 그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4. “주여, 이 나라에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악한 통치자를 견제하도록 세워 주소서.”

5. “주여,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박해의 시대에도 복음이 결박되지 않게 하옵소서.”

6. “주여, 불의한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땅에 서게 하옵소서.”

7. “주여, 악한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보호와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목적(2:2)

“목적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 밑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게 도와 주소서.”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해야 한다.

이 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기울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박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통치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 이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정부로부터 이런 수준의 보호를 기대한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3-4)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하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가장 사악한 죄인,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를 구원하려면 죄를 보여 주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기도의 근거 1: 한 하나님만이 계신다(5)

개역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다.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근거: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회계 보고해야 할 분 즉 한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Many gods, one God

그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시며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겔 33:11).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책임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마 23:37). 그럼에도 악한 행위가 죄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그가 깨달을 수 있다.

기도의 근거 2: 한 중재자가 계신다(5)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부처, 공자 등 인간이 만든 여러 중재자는 소용이 없고 단 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절대적 진리는 매우 길이 좁다. 한 하나님, 한 중재자

그분이 바로 처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분 외에 다른 구원자, 중재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6)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며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려면 중재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대제사장)가 되신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묻히고 다시 사는 것,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인류 모두를 위한 충분한 대속이다.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신앙적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진 행위이다.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바울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7)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교사라고 한 이유, 마28: 19-20, 가르쳐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겸 교사이다(엡4:11, 딤전3:2,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공예배 기도의 태도 (8)

바울은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진노하지 않고 — 형제들과 화목해야 한다.

평화를 만들지 않고 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공예배 기도할 자격이 없다.

2. 의심하지 않고 —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마음에 분쟁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3. 거룩한 손—거룩한 삶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시 66:18).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들에 따라 공적인 장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면 된다.

4. 효과적인 기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5. 이런 기도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드려야 한다. 꼭 교회나 성전이나 신전에서만이 아니다.

결론

말씀 사역과 함께 공예배에서는 남자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예배 기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의 근거: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속 희생물 :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한다.

공예배 기도를 바르게 실천하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딤전 강해 7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
자매님들의 고상함과 복종

딤전2:9-15

지난주 2:1-8. 딤전 강해 7, 에베소 교회 공적 모임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예배와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잊고 힘을 잊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통차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가능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공 예배 중 기도의 네 가지 요소:

- 1) 간구: 구체적인 필요, 부족함, 재앙의 제거 등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육체적 필요(의식주)뿐 아니라 영적 필요(용서, 은혜, 화평, 위로)까지 포함한다.
- 2)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원 전반,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 영광 찬송
즉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 3)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억울함을 아뢰거나, 남에게 닥친 재앙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의미도 있다.
- 4) 감사: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모든 기도에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빌 4:6).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 목사의 목회 기도 등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려면 공적 기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공예배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반복이 없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

오늘 < > 현시대에 다루기 힘든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설교하려고 한다.

여인들의 복종, 어려운 주제

오늘날 이른바 ‘여성 해방’과 각종 폐미니즘 운동의 시대에, 11절처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반발하게 만든다.

일부 선의의 저술가들조차 바울을 ‘여성을 싫어한 고집 센 독신 노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과 권위를 믿는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베도로 역시 벤전 3:1-7에서 자매님들의 처신에 대해 말한다. 참조

만일 교회 안에서 여인들의 처신이나 복종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문제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있다.

딤후 3:16-17.

자매님들의 위치 혹은 처신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리라(골3:18).

복종의 의미

디모데전서 2장 11절의 ‘복종’(subjection)은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18절의 ‘복종’과 동일하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권위 아래 두다, 질서 안에 두다”이다.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계급은 가치나 능력의 우열이 아니라 질서와 권위의 문제다.

대령이 이등병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직분에 있을 뿐이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 14:40)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가정, 직장, 군대 등

군대에 계급 질서가 없다면 혼란에 빠지듯, 사회 역시 복종의 질서가 없다면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1.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훈련하고 사랑으로 징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2. 회사에서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한다(엡 6:5-8).

이 본문은 원래 가정 내 종들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의 노동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용주 위에 서려고 하면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는다.

3. 사회에서 시민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비록 그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롬 13장; 베전 2:13-20).

질서 유지, 다만 예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

복종은 굴종(subjugation)이 아니다.

1. 복종이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질서의 근원도 하나님이며, 권위의 정당성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적 복종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두려움이나 위협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다.

질서를 세우신 분이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복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이 된다.

2. 굴종은 힘의 불균형에서 나온다.

권위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강요된다.

굴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굴종은 침묵하지만 마음은 무너진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분노·체념·자기 상실이 쌓인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굴종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3.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질서(order)의 문제이지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보다 덜 귀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질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성도가 더 존귀한 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굴욕이 아니라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책임 있게 살아가는 태도다.

그래서 성경적 복종은 항상 상호 책임을 전제로 한다.

남편에게 아내의 복종이 요구된다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책임이 주어진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맡은 자가 있다면, 그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복종은 즉시 굴종으로 변질된다.

4.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복종을 가르치되, 굴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되, 인간의 욕망을 그 질서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살리라는 부르심이다.

5. 복종은 영적 성장과 사역의 핵심이다.

남편은 주님께 복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며(엡 5:21),

아내는 주님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오늘 디전 2:9-15의 초점은 지역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복종이다.

바울은 믿는 여자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복종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권면한다.

1. 단정한 옷차림 (9절)

여기서는 세상의 인위적인 화려함과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이 대비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해: 금은보석 장신구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다.

바울은 외적 화려함, 사회적 과시 대신 선한 행위, 경건한 성품이라는 말의 구조를 사용한다.

이건 금은보석 장신구의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교정이다.

즉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꾸미라”***는 것이다.

경건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외적 화려함으로 자신을 세우지 말라.

바울은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 자체를 금하지 않았고 다만

그것들을 ‘유하고 조용한 영’(벧전 3:1-6)의 대체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예배소는 당시 매우 부유한 상업 도시였다.

무역과 금융이 발달했고, 그만큼 사치 문화도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외적인 모습으로 신분과 부를 드러내려는 사회적 경쟁이 치열했다.

바울이 말한 ‘장식한 머리’는 단순히 단정하게 머리를 꾸민 것을 뜻하지 않는다. 금실과 보석을 머리카락에 엮어 복잡하게 장식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세속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자리가 아니라, 외모와 치장을 드러내고 서로를 의식하는 전시와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의 권면은 외모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목회적 경고였다.

‘단정함’(modest)이라는 말은 본래 ‘품위 있고 질서 있다’는 뜻이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질서 있으며 좋은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암전하게’(shamefacedness)는 극단을 피하는 절제를 말한다.

부끄러움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맑은 정신’(sobriety)은 건전한 판단력과 자기 절제를 의미한다.

우리 교회 모든 자매님들이 이런 고상한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2 선한 행실 (10절)

바울은 “옷 대신 선행을 입어라”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외모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된다”거나

“선행만 있으면 단정한 차림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금 · 진주 · 값비싼 옷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과시와 경쟁의 수단이 될 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경고다.

복음으로 인한 여인들의 위치 변화

복음은 여성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켰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동등함을 확증했다(갈 3:28).

로마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던 여성들의 삶은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을 섬긴 여성들이 있었고(눅 8:1-3), 십자가와 장사,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이었다.

사도행전에는 도르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등 경건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로마서 16장에는 최소 여덟 명의 여성이 언급된다.

뵈뵈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종이었다(롬 16:1). 여자 집사가 아니라 섬기는 종.

그리므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인들의 참된 장식은

머리의 화려함이나 보석의 값비싼 빛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경건한 삶이다.

3. 여인들의 위치: 조용히 배워야 한다(11절)

‘잠잠히’(silence)이라는 번역은 오해를 낳기 쉽다.

같은 단어가 딤전 2장 2절에서는 ‘조용한’(quiet)으로 번역된다.

일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용하여 예배 중에 방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전14장 대언과 타 언어, 타 언어 통역 등 ,

대언은 예언이 아니다. 타 언어는 모두 다른 나라 말이다.

그런데 대언과 타 언어 모두 남자가 했다. 14:27, 14:29

여자들에 대한 것 14:34-35, speak. say나 tell이 아니라

즉 나서서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말이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끝에 40절이 나온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의견 내도 된다.

다만 교회를 다스리려고 스피커가 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가 12-15절에 나온다.

4. 권위 존중 (12-15절)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다.

연로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딛 2:3-4).

디모데 역시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배웠다(딤후 1:5).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사역은 남자들 위에 군림하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여성의 개인적으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사도행전 18:24-28).

그러나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며 남자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조용함’을 실천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권면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는 창조에 근거한 논거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다(디모데전서 2:12-13).

바울은 같은 논거를 고린도전서 11:1-10에서도 사용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 더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권위의 질서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그 질서를 말해 준다.

둘째 논거는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논거다.

사탄은 여자를 속여 죄를 짓게 했고(창세기 3장; 고린도후서 11:3), 남자는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왔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의 본래 질서에 속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 나타나는 무질서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거부한 결과다.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되었다. 내 목회 사역에서도 내 아내를 비롯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매님들의 격려와 조언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 해도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를 지배하는 권위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사실 성경대로 믿는 자매님들이라면 나서서 교회를 지배하거나 운영하려는 욕망 자체가 없다.

벧전3:5-6

인간의 창조와 타락은 여성을 열등한 위치에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여기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디모데전서 2:15).

개역성경 등: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질문: 여자들은 아이들을 나으면(적어도 한 명 나으면) 구원받을까?

아니다. 역사와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앞뒤 문맥상 여기의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KJV: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

15절에 나오는 구원을 설명하자면, 과연 여자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한다. save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개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를 표현하려면 save 다음에 from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

그런데 딤전2:15에는 여자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죄나 혹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음을 알기에 일단 여기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만 구원받는다면 남자들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13-14절을 보면 이브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범법하였다. 그리고 15절이 나온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Notwithstanding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faith and charity and holiness with sobriety.

여기서 영어 in childbearing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

childbearing은 우리말로 ‘아이를 지닌다’인데 이것은 수태와 해산 그리고 심지어 교육과 훈련까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여기의 in은 수단의 의미도 있고 기간의 의미도 있다.

수단의 의미로 in을 해석하면 ‘수태와 해산을 통해’(개역성경의 해산함으로)가 될 것이고 기간의 의미로 in을 해석하면 ‘수태와 해산의 기간에’로 볼 수 있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은 in을 후자의 의미로 보고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15절은 그들(3인칭 복수(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음, 1. 성경적 정의에 따른 선한 여인들을 가리키거나, 2. 남편과 아내, 즉 부부를 가리킴)이 사랑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1. 그런 선한 여인이나, 2. 아내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범법하는 것에서) 구원받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수태와 해산하는 시기(그리고 그 이후의 양육 시기이고) 이때 즉 수태와 해산을 거치는 때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이브처럼 실족하가 가장 쉬운 때이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창3:16)

따라서 여성이 가장 연약해지고, 창 3장의 결과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기— 수태와 해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절제 안에 거할 때 사탄의 미혹과 범법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이다.

결론

교회 모임, 공예배서 여인들의 위치와 모습과 처신

1. 여인들은 질서를 위해 복종해야 한다.
2.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3. 여자들의 사역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것이다.
4. 경건한 여성들은 지역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 비록 목회 사역의 의미에서 말씀의 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그들이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5. 특히 여인들이 가장 연약해지는 때, 수태와 해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절제 안에 거할 때 아내는 사탄의 미혹과 범법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
6.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위해 도와주는 좋은 남편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기고가 막히지 않는다.

딤전 강해 8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딤전3:1

지난주 2:9-15. 딤전 강해 8, 에베소 교회의 공적 모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예배와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음. 여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교회를 흔들, 지난 시간 자매님들을 향한 바울의 권고

1. 여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 복종해야 한다.
2.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3. 여자들의 사역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위해 도와주는 좋은 남편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오늘 < >, 딤전3:1,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딤전3:2-7은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또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사가 되려는 의도 혹은 욕구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인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없이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인격은 한 사람의 도덕적 중심과 책임성을 말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내적 기준이다.

가치관, 양심, 판단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혹과 압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격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에게 인격을 먼저 묻는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부족하지만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나를 돌아보는 설교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정이든 지역 교회든 모든 것은 지도력에 따라 세워지거나 무너진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해당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전반에 두신 보편적인 질서다.

가정이 무너질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장의 책임 상실이 있고, 공동체가 방향을 잃을 때 그 배후에는 지도자의 판단 실패가 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책임 구조를 부여하신 조직체다. 조직된 질서가 무너지면 유기체도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지도력은 영적 조직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조직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성령님께서는 지역 교회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다. 성경은 그 선물들 가운데 “목사 겸 교사”(에베소서 4:11)를 분명히 언급하며, 또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的 선물도 함께 말한다(고린도전서 12:28).

엡4:11-12,

고전12: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돋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이는 교회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각자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할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질서한 집단으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맡은 지도자를 통해 세우신다. 따라서 지도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다.

이 원리는 신약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역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도자를 통해 인도하신 역사다.

모세와 아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불드는 중보자였다. 모세의 지도력은 완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책임 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의존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지도력이 공백 상태가 되었을 때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백성은 단순히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도력의 부재를,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했다.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다. 아론은 대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고, 말도 잘했고, 백성 앞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아론은 백성 앞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갔다.

백성은 불안해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요구했다. 그때 아론은 백성을 불들어 세우지 못했다. 그는 “기다리라”고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는 백성이 하자는 대로 귀고리를 모으게 했고, 그 요구에 순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을 단순히 허용한 정도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함으로써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론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반응을 더 의식했고, 진리를 지키기보다 갈등을 피하려 했다. 그 결과 그는 백성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본다. 지도자가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백성을 이끌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백성에게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게 된다. 아론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의 부재였다.

출32장 사건은 지도력의 공백이 얼마나 빠르게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분명한 사례다. 하나님 백성에게 지도력의 문제는 언제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다.

여호수아

모세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여호수아는 군사적 능력으로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모세 곁에서 말씀과 순종을 배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권면이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근거는 결코 여호수아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감이 아니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수1:8)

지도자의 담대함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성경의 평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삿2: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느헤미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의 느헤미야 역시 지도력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대언자도 아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그는 행동에 앞서 기도했고 계획에 앞서 말씀을 불들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권한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 속에서도 그는 끝내 방향을 잊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의 압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집중력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비난과 조롱,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가 거세질수록 본질에 더욱 집중했다. 그는 문제에 반응하며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방해는 있었지만 방향은 흐려지지 않았고, 위기는 있었지만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집중력은 냉혹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집중이었고, 그의 결단은 독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끝까지 붙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능력보다 신실함, 기술보다 사명 의식이 드러나는 지도력이었다.

이처럼 성경의 지도자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조직을 장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다스린 사람들이었다. 지도력의 실패는 대부분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의 영적 중심이 흔들릴 때 시작된다.

목자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책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언제나 지도자의 책임을 가장 앞에 두었다. 그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제도나 구조를 먼저 고치라고 말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외형을 바꾸라고 권면하지도 않았다. 대신 디모데와 디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감독과 장로, 곧 목사의 자격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그중에서도 지도자의 문제였다.

바울은 교회의 건강이 회중의 열심이나 헌신, 숫자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방향과 안전이 지도자의 인격과 삶,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언제나 먼저 지도자의 삶을 점검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람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이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권면한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디모데가 목사로 있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20장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바울 목회의 자기 해석이자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폐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28)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명령의 순서다. 바울은 “양 폐를 살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한다. 지도력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점검이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교회를 자신의 욕망과 성향으로 이끌게 된다. 바울은 지도자의 무너짐이 곧 교회의 혼들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이 표현은 목회의 무게를 단번에 드러낸다. 교회는 노력이나 열심의 산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실제 죽음의 대가로 세워진 공동체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맡아 돌보는 일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먹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살리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목회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상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행20:19)

바울의 목회에는 겸손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으며,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 그는 사역을 즐기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수없이 오해받았고, 배척당했으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후6, 11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의 지도력은 편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리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 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20:20)

바울은 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조절하지 않았다. 그는 듣기 싫은 진리도 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리를 감추는 것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목자는 양의 반응보다 양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 목회의 핵심 태도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와 동일한 목회 심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권위적인 지도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살전 2:6-7)

바울은 자신을,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를 품고 돌보는 유모로 표현한다.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다. 바울은 권위를 내려놓았지만, 책임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2:8)

여기서 바울은 목회의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낸다. 그는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혼까지 함께 내어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는 시간과 체력, 명예와 안전,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로 성도들을 섬겼다. 바울의 목회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목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목회는 사랑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

바울의 목회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사역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목회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지를 자기 삶과 사역 속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요10:11)

예수님은 목자의 역할을 돌봄이나 보호 정도로 축소하지 않으셨다. 선한 목자의 본질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정의하셨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된 선언이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말 그대로 생명을 주셨다.

바울의 목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목자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교회의 주인이나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적 목자상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요10:14)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의 깊이를 의미한다. 바울의 목회가 바로 그려했다. 그는 성도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고, 사역의 결과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연약함을 자기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있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요21:15). 이 명령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를 넘어서, 양들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라는 부르심이다. 바울은 이 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을 전했으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부드러운 권면으로 성도들을 먹였다.

바울의 목회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사역을 설명한 이론이 아니라, 그 사역을 살아낸 증거였다. 그는 예수님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들을 앞세웠으며,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원리는 목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목사를 비롯해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 등 교회 안의 모든 참된 지도력은 권한이나 직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충성, 양들을 향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서 나온다.

특별히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의 문제는 결국 목사의 능력 이전에 목사의 신실함, 기술 이전에 목사의 마음과 인격에 달려 있다. 이 기초가 분명할 때, 비로소 목사의 자격과 목회의 원칙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디모데전서 3장의 기준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준이다.

귀감이 되는 목회자들이 강조한 지도력과 목사의 중요성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흔히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지점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회중에게서 찾지 않았고, 시대에게서 찾지도 않았다. 언제나 그들의 시선은 강단, 그리고 목사에게로 향해 있었다.

먼저 우리는 스펄전(1834-1892)을 떠올릴 수 있다. 스펄전은 수많은 사람을 모은 설교자였지만, 교회의 능력을 숫자나 열김에 두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영적 상태와 강단의 상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교회가 약해질 때 그 원인은 대부분 강단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강단이 흐려질 때 교회는 반드시 함께 흐려진다고 보았다.

스펄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는 프로그램이나 조직보다 설교자의 양심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해도 교회는 결국 병들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설교 기술보다 설교자의 인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를 보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교회의 위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진단한 인물이다. 그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약해지는 이유를 문화나 사회 변화에서 찾지 않았다. 그의 진단은 분명했다.

“강단이 말씀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강단이었고 그 강단을 책임지는 이는 목사였다. 그는 교회가 설교를 하나의 종교적 강연이나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바꿀 때, 이미 영적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의 위기이며, 목회의 위기는 곧 강단의 위기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존 맥아더(1939-2025) 역시 현대 교회의 혼란을 진단하면서, 그 책임을 목사의 역할에서 찾았다. 그는 교회가 진리를 탐험하고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교회가 방향을 잃는 것은 회중이 원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맥아더는 교회의 문제를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지도력의 문제로 보았고, 그 지도력의 핵심에 목사가 있다고 보았다. 목회자가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목사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목사에게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는 결국 강단에 달려 있고, 강단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목사에게 달려 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회중의 문제로 돌리지 않았다. 회중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먼저 목회자가 흐리멍덩해 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목사의 인격, 목사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두려움을 강조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사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할 때, 그는 프로그램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길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제도보다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새로운 방법에 있지 않다. 교회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에게 있다. 말씀이 살아 있고, 양심이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고전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중언한 지도력의 본질이다.

결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려는 마음 자체는 분명 선한 소원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모함 자체만으로 감독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모함에는 반드시 삶으로 겸증된 인격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인격은 교회 회중 앞에서 시험과 판단을 받아야 한다.

목사의 직무는 개인의 열망으로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보고 인정하여 맡기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내가 하고 싶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결정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좋은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딤전 강해 1부
목사의 조건과 자격:
15가지 표준 지침

딤전3:2-7

지난 시간: 딤전3:1,

교회에는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지도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이기에, 누군가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참된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양 폐를 돌보려는 소원 자체는 귀하고 선한 마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모함이나 지도력의 열망만으로 목사의 직무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모함에는 반드시 삶으로 검증된 인품과 신실함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지도력은 개인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회중의 분별과 판단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는 “내가 하고 싶다”에서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인정할 때 맡겨지는 직무다.

이번 시간 < >

목사

신약 성경에 따르면 ‘감독’(bishop), ‘장로’(elder), ‘목사’(pastor)는 같은 직분을 가리킨다.

감독은 ‘감시하고 다스리는 자’(overseer)라는 뜻이며, 교회의 사역을 감독할 책임을 맡았다(사도행전 20:17, 28; 베드로전서 5:1-3).

‘장로’는 ‘나이 든 사람’을 뜻한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14에서 사용한 ‘장로회’(presbytery)라는 표현은 어떤 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안수한 그 지역 교회의 장로 공동체를 의미한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의 다른 명칭이며(디도서 1:5, 7),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목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양 폐를 인도하고 돌보는 사람이다(엡4:11).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 자격과 디도서 1:5-9의 장로 자격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동일한 직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도 시대의 교회 조직은 매우 단순해서, 목사(장로 · 감독)와 집사만 있었다(빌립보서 1:1). 각 교회에는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스림(행정)을, 어떤 이들은 가르침을 맡았다(디모데전서 5:17).

여자 목사?

성경은 감독, 곧 목사의 직무에 대해 단수로도, 복수로도 말한다. 한 교회에 한 명의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의 목사가 함께 섬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유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다. 여자는 목사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11-12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 들어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이라고 말하고, 3장 2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명시한다. 문맥상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연속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들은 이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는다. 미국의 침례교회들, 남침례교회를 포함한 침례교 전통 전체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여성의 낮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택이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 기준을 바꾼다면, 그것은 시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실제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지미 카터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례교회를 탈퇴하며, 이를 인권 침해와 성차별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을 인권의 문제, 성 평등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성경이 말하는 역할의 구분은 가치의 차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존엄으로 창조하셨지만, 역할은 다르게 맡기셨다.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를 남자에게 맡기신 것은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구속 역사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는 시대의 압력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히는 공동체다. 이 질서를 지킬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되 왜곡되지 않고, 사랑하되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

목사의 자격과 조건

나를 포함해서 3:2-7절에 있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목사는 없다. 다만 이것이 표준이기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감독은 지역 교회의 목사, 목사로 하겠다. 위어스비 주석 참조

1.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3:2)

이 말은 문자적으로 “불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즉 사탄이나 불신자들이 목사의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을 붙잡아 교회와 복음을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완전무결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목사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 또는 공적인 수치가 되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개인 신앙인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과 행동,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러므로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 말버릇 하나, 돈 문제 하나가 교회 전체를 향한 비방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흄을 잡으려 해도 정당하게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비난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이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다. 목사는 세상 앞에서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겸증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목사 자격의 출발점이며, 다른 모든 조건의 기초가 된다.

2. 한 아내의 남편이며 (3:2)

이 표현은 목사 직무가 남자에게 맡겨진 직분임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의 가정생활이 정결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결혼 여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지켜 왔는가를 묻는 말씀이다.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목사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또 이 말은 아내와 사별한 뒤 합법적으로 재혼한 것을 문제 삼기 위한 말이 아니다. 바울의 관심은 결혼의 횟수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태도와 현재의 삶의 상태에 있다.

성경 전체의 결혼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 볼 때, 그 의미는 분명하다. 목사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정을 책임 있게 지켜 온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다. 가정은 목사의 첫 번째 사역지이며, 그곳에서의 신실함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3. 깨어 있고 (3:2) vigilant,

“깨어 있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 낮에 열심히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자신과 상황을 분별하며 늘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목사는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

깨어 있지 않은 지도자는 작은 탐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많은 실패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지 않은 상태가

오래 누적된 결과다.

깨어 있음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태도다. 자신의 동기, 감정, 판단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4.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3:2)

원래 이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표현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을 말한다. 목사는 순간적인 감정, 사람들의 반응, 외부 압력에 의해 판단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사역에는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결정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이때 맑은 정신을 잃으면, 옳은 판단보다 쉬운 판단을 택하게 된다. 목사는 급하게 말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5. 행실이 바르고 (3:2)

이 말은 삶이 질서 있고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다. 신앙 고백과 일상의 삶 사이에 큰 간극이 없어야 하며, 말하는 진리와 사는 모습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과 교회에서 동일해야 한다. 행실이 바르다는 것은 외적인 단정함만을 말하지 않는다. 시간 사용, 인간관계, 말의 절제, 삶의 구조 전체가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사의 삶은 교훈 이전에 본이 된다.

6.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3:2)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교회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고, 오늘날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태도다.

목사의 가정과 삶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집을 자주 개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교회는 이런 환대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교회의 리더가 되려는 분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잘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오픈할 줄 아는 사람, 신비에 갇힌 사람은 안 된다.

7.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3:2)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 직무의 핵심이다. 목사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교사이며, 말씀을 떠난 지도력은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다.

가르치는 재능은 말재주를 뜯하지 않는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말씀 연구에 게으른 목사는 결국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

8.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3:3)

목사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양 떼 앞에 서는 사람이다. 목사는 성도들의 양심과 교회의 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 실족의 본이 될 가능성, 그리고 세상 앞에서 비방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목사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강단에서 절제를 말하면서 삶에서는 술을 허용한다면, 말과 삶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윤리 규정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절제와 분별 위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이다. 목사는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목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다.

9. 구타하지 아니하고 (3:3)

이는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 전체를 포함한다. 말과 태도에서 위협적이거나 거친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목자는 양을 다루는 사람이지,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다. 권위는 폭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참된 권위는 온유함과 신뢰에서 나온다.

10.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3:3)

목사는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질 문제는 지도자의 인격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영역 중 하나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목사는 이익보다 양심을, 소득보다 사명을 앞에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의 사례비 등도 나이, 교육, 경륜,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상식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11. 인내하고 (3:3)

교회 사역은 사람을 다루는 사역이기에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판과 오해, 느린 변화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태도는 지도자의 성숙을 보여 준다. 날이 갈수록 이것이 중요함을 느낀다.

12.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3:3)

목사는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리를 지키되 싸우는 태도로 지켜서는 안 된다. 딤후2:24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공동체를 약하게 만든다. 목사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13.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3:3)

이 표현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명예에 대한 욕심, 영향력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까지 포함된다. 목사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사람이라기보다, 밀려진 것을 충실히 관리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탐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교회 안에서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내려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목사는 자기 확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사역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된다.

1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3:4-5)

성경은 목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본다. 이는 가정이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질서와 사랑,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권위적으로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과 책임, 훈육과 본이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녀들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분명한 방향과 중심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묻는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교회를 돌보는 일은 말과 행정 이전에, 삶으로 증명되는 일이다. 가정에서 실패한 리더십은 교회에서도 반복되기 쉽다. Steven Anderson 예

15.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3:6)

목사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신앙의 연수가 곧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영적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세운 지도자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은 곧 무너짐의 시작이다.

성경은 초신자가 목사가 될 경우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귀의 정되는 교만 때문에 생겼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다. 사탄은 특별히 지도자의 교만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은사가 앞선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먼저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한다. 눈에 띠는 재능보다, 오래 검증된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

16.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3:7)

목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시선까지 고려하라고 말한다. 이는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증언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경건해 보일지라도, 교회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업 관계, 이웃 관계, 사회적 책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모두 복음과 연결된다.

성경은 이것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지도자의 실족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 안팎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

표준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목사의 자격을 차분히 읽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다. 책망 받을 것이 없고, 가정이 완전하며, 언제나 깨어 있고, 말과 행동에 조금의 흠도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기준을 “이 정도면 합격, 이 정도면 탈락”이라는 식의 체크리스트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두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이 기준을 주신 목적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이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도자의 표준을 분명히 세워 주신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표지판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무 기준 없이 맡기지 않으신다. 동시에, 흠 없는 사람만 찾으시지도 않는다. 성경의 관심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있다. 이 자격들은 “너는 이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자신을 다듬어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자격들은 한 번에 충족되는 조건이 아니라, 목사나 교회 리더가 평생 볼들고 살아야 할 기준이다. 오늘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정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다. 반대로 이 기준을 부담스럽다며 무시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낮추어 버리는 순간, 교회는 기준을 잊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기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기준이다. 지도자가 이 기준을 잊으면, 교회는 반드시 혼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러나 매우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제시하신다. 이 자격들은 교회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러므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나는 이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 기준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 앞에 서는 바른 태도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표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그 표준을 향해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을 던져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다. 이 기준이 살아 있을 때, 교회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진다.

딤전 강해 11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딤전3:14-16

2025년 가장 의미 있는 일: 맥아더 목사님의 책 예배를 중심으로 23번에 걸쳐 예배에 대해 강해한 것, 시29: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 뒤 디모데전후서 강해 시작,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요즘 내가 바르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

나도 사람인자라 일주일에 세 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 설교 주제가 정해지지 않을 때 힘이 듈다.

그래도 창32:10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궁흘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뼈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 >, 교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사랑침례교회에 나오며 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

목사, 집사, 직책을 맡은 모든 분들, 교회 성도들은 지역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짧은 단락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려 가려는 소망과 함께(14)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한다.

1. 하나님의 집 (15절 상반절)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족이다. 여기의 ‘집’은 ‘가족’ 혹은 ‘가정’, ‘가문’이라는 말이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는 즉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요 1:11-13; 베전 1:22-25).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형제들’이다(딤전 4:6).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마1:1): 모두가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가족을 대하듯 대하라고 권면했다(딤전 5:1-2).

a. 지역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의 아이들처럼 성도들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음식과 음료이다.

이 음식과 음료는 성도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양식이고 그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우리의 뺨이며(마 4:4), 젖과 단단한 음식이며(고전 3:1-2; 히 5:12-14), 꿀과 같다(시 119:103).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딤전 4:6).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서 단순한 숫자 증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육으로 성장한다(엡 4:11-16). 현재 릭 워렌의 새틀백, 빌 하이블스의 월로우 크릭,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 힐송 교회 등 모두 무너지고 있다. 양식이 없어서 따라서 목사는 한 주 내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 일에 써야 한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성경 강해, 책 저술, 기도문, 교회 챕봇, 미디어 사역, 내부 문제 처리, 외부 투쟁

b. 가족의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사랑 안에서의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이는 반역자나 폭군이 된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전 4:18-5:13; 고후 2:6-11). 어떤 때는 책망이면 충분하지만, 때로는 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c.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본도 필요하다(살전 2:7-12). 영적 지도자들은 젖 먹이는 어머니의 온유함과, 사랑하는 아버지의 강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

2.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15절 중반절)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에서 나온 말로 그 뜻은 ‘모임’이다. 신약에서 이 말은

약 100회 가량 지역 교회, 곧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있지만,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모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기관이므로(행 20:28),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억압하는 종교적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벧전 5:3-5; 요삼 9-12의 디오드레베).

15절: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목회서신들은 지역 교회의 질서를 위한 지침서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세우고, 성장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그중 일부는 유익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데 가장 뛰어난 조언은 바로 이 세 권의 영감받은 서신서, 즉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안에 있다. 젊은 목회자든, 사역의 연륜이 깊은 목회자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한 가르침으로 자신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15절 하반절)

에베소에는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던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다. 기둥의 지름 1.2m(사람 두세 명이 팔을 벌려야 감쌀 수 있는 규모), 높이가 18m, 신전 크기 길이 137m, 너비 69m(축구장 105m, 68m, 이것의 약 1.3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견고한 터(기초)가 있어야 하고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어야 한다.

지역 교회는 이러한 기초와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지탱해야 하는가?

진리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가 ‘기둥’이라 불리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마치 기둥들에 진리로 여겨지는 글이 새겨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어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빌 2:16). 지역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터’로서의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기초 역할을 한다. 지역 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나 타협하기 시작하면(딤전 4장 이하), 마귀는 그 틈을 타 전진한다.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와 배도에 맞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진리 자체가 교회의 기둥이며 터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16절에서 교회가 떠받치고 드러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따라서 16절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정의문이다.

성경 문제: 개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킹제임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 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문맥에서 개역성경처럼 ‘경건하게 사는 법’이 갑자기 튀어나올 여지가 없다.

교회가 불들고 증언해야 할 객관적 진리가 나와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the mystery of godliness’는 흔히 생각하듯이 인간의 경건한 삶이나 윤리적 경건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godliness는 행위로서의 경건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godly’라는 형용사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과 특성, 곧 하나님다움 자체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 ‘하나님다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정의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경건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선언이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한다.

“1.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2.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3.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4.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5.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6.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여섯 문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며, 그분의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 정체성과 역사적 사역을 요약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다움’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1. 성육신의 신비,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는 선언은 이 6 문장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곧 성육신이 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며,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이다.

‘신비’라는 말은 본래 이방인들도 잘 아는 말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종교 안에 여러 신비들을 가지고 있었다. ‘신비’란 본래 거룩하며 감추어진 것을 뜻한다. 이방인들은 또한 큰 신들과 작은 신들, 큰 신비들과 작은 신비들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교도들의 신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라고 말한다. 이 신비는 인간의 행위로 설명되거나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역사적 개입으로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에 있다.

바울이 “논쟁의 여지없이 이 성육신의 신비가 위대하다”고 말한 것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적 계시가 너무도 위대하고 설명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포인트는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위대한 신비”이다.

성육신의 이 교리는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신다는 삼위일체 교리 다음으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신비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 진리는 모든 논쟁과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며,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이다.

NIV, 개역 성경의 문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 (*)

‘그는’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2.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라는 말: 비록 자기 백성인 유다 민족은 그분을 거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 이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이다(롬 1:4). 이로 분은 없으므로 이것 역시 위대한 신비이다.

3.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천사들이 그분의 수태를 선포했고(눅 1:32-33),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눅 2:10-11), 시험받으신 후에 그분을 섬겼으며(마 4:11), 수난 가운데서 그분을 위로했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으며(마 28:1-20), 승천하실 때에도 그분과 함께했음을 가리킨다(행 1:10). 이것 역시 위대한 신비이다.

4.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의 큰 신비였다. 이 신비가 얼마나 커던지, 사도 베드로조차도 환상으로 확증을 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행 10:1-48). 만국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다(*) .
5.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라는 말은, 몇몇 어부들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만을 통해, 온 세상이 그분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것 역시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큰 신비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리는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성향과 욕망에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6.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부활이 그분의 승천에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가 최종적으로 선언된 사건으로서, 그분의 승천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위대한 신비이다.

결론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분
그래서 이 신비는 모든 신비 중에 가장 위대한 신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올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다.

1. 나라가 위험하다.
2. 교회와 성경 사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
3.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려움들이 있다.
4. 이 모든 것 뒤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요14:6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할 때
히13:5-6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다.

5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돋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딤전 강해 12
집사의 조건과 자격:
16가지 표준 지침

딤전3:8-13

지난 시간: 딤전3:1-7, 목사의 인격, 자격과 조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좋은 인품,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회계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목회해야 한다.

오늘 < >, 지난 주 위어스비 주석 참조, 위어스비는 훌륭한 목사. 목사의 16가지 자격과 조건 오늘, 집사도 위어스비를 참조해서 전하려고 한다.

집사 (디모데전서 3:8-13)

집사는 영어로 deacon이고 이것은 그리스어 ‘디아코노스’(diakonos)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단순히 “섬기는 자, 종”이다.

집사는 구약 성경에는 없고 신약에만 나온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교회의 배급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매일 가난한 성도들과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 음식과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배급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로 사도들이 직접 음식 배급까지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회중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내서 이 일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교회는 이 제안에 동의하여 일곱 사람을 선택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맡겼다.

그 결과 배급 문제로 인한 불평은 해소되었고 교회 안의 질서와 연합이 회복되었다. 동시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퍼지며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사건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이며, 목사를 돋는 직분이 말씀 사역을 보호하고 교회의 섬김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졌음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집사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직무를 보면 딤전 3장이 말하는 집사의 직무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집사들은 목회자와 교회를 돋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의 삶의 행실을 살피고,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고, 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도 맡는다.

집사에게 목사와 같은 권위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들이 있다. 이런 자격을 다 만족시키는 집사는 없다. 따라야 할 표준으로 여기면 좋을 것이다.

1. 신중하며

집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본받을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집사는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직분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grave’라는 말. gravity(중력), 사람이 무거워야 한다. 딤전3:4 목사의 자격,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gravity)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신중하다, 중후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 몸가짐과 태도 전반에서 가벼움이 없고, 무게와 위엄이 있으며, 직분의 엄숙함을 드러내는 인격을 뜻한다.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주는 품격이 있고,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으며, 경솔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 처신이 가벼운 사람은 집사를 하면 안 된다.

2.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며 협담으로 관계를 흐트리뜨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말하는 이중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집사의 말은 언제나 일관성과 진실성을 지니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집사의 사역이 단순한 행정이나 육체적 섬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며 이끄는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집사는 성도들 사이의 오해를 풀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때로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권면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받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일 집사의 말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마다 다르게 전달된다면,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과 분열을 심을 위험이 있다. 반대로,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일관된 집사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직분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의 말 자체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집사에게 요구되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음” 조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언어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성품을 의미한다. 집사는 말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신뢰를 쌓고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

3. 자신을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집사 역시 목사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양 폐 앞에 서는 사람이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집사는 술 마시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윤리 규정이 아니라, 집사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절제와 분별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이다.

집사는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는 자이므로 가장 엄격한 절제의 본을 보여야 하며, 따라서 먹고 마시는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모범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4.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

집사들은 현금을 관리하고,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분배하는 일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유혹이 따를 수 있으며, 돈을 훔치거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위험도 있다. 교회의 재정 위원회는 반드시 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커지므로 목사, 사무원 등에게 교회 법인 카드가 주어진다.

법인 카드 사용 시 늘 주의해야 한다. 아들딸에게 카드를 주어 쓰게 하거나 교회 돈으로 자기의 것을 구매하는 일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도둑질이다. 그러므로 목사, 집사, 교회 행정 사무원 등 이런 데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두려운 심정으로 해야 한다.

OOO와 그 부인을 보라. 교회 목사나 집사, 성도는 이런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한다.

5.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9).

이것은 교리적으로 견전함을 뜻한다.

‘신비’라는 말은 ‘한때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뜻한다(구약과 신약). 믿음의 신비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한다. 집사들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위어스비의 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경건한 삶으로 그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나는 교회 헌법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는 교회 직분자들을 종종 보아 왔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정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대 교회의 ‘헌법’ 혹은 정관은 바로 성경이었다.
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집사는 지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여기에 또다시 순수한 양심이 등장한다.
양심이 더러워진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다거나,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현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투명하고 순수해야 한다.
우리 교회 다수의 집사들, 나이가 55세 정도
사회에서 이사, 사장 등 중역을 맡아 사회 물정을 알고 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6. 시험을 거쳐 입증됨 (10절)

이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 신자나 새로 등록한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내, 주차, 주방 봉사, 주일학교 봉사 등 여러 섬김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도 먼저 종으로 시험을 받았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종으로 섬긴 후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 동안 양을 쳤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목수로 일하셨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순서가 확실하다. 먼저 종이고 그다음에 지도자였다.

검증되지 않은 성도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증언을 약화시킨다.

“누구를 집사로 세우면 교회에 더 잘 나오고 잘 섬길지도 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시험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면, 유익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즉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이 지금의 그를 나타낸다.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 문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의 검증은 집사를 세우기 전 그의 행적에 대한 검증을 뜻한다.

또 집사는 종신직인가? 목사는 종신직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교회의 필요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하면 된다.

7. 경건한 가정 (11-12절)

집사든 목사든 아내는 그의 사역의 일부이다. 경건함은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즉 남자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젠그레아 교회의 뵈베가 여집사였다(로마서 16:1, 디아코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뵈베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 딤전 2장 여자에 대한 명령 이후에 목사 집사가 나온다. 직분을 가졌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교회는 경건한 여성들의 섬김 사역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된다. 주방 섬김, 교사 등, 우리는 직분이 없어도 섬길 수 있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집사 자매의 첫 번째 조건: 신중하며, 맑은 정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또한 경건한 결혼 생활을 말한다.

집사의 아내 역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섬김 사역을 신중하게 여기고, 헐뜯지 아니하고(험담하지 않으며(문자적으로는 ‘마귀가 아닌 자; 곧 중상모략하는 자나 거짓 고소하지 않는 자),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

목사나 집사의 아내가 험담과 중상으로 교회에 끼치는 피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8. 일하려는 마음과 보상 (13절)

집사는 직무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좋은 지위’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군대의 계급, 기초, 사다리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즉 집사는 이런 기초 혹은 계급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획득하는 사람이다. purchase라는 말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섬겨서 그 지위를 구매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다.

신실한 집사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승진”시키시고, 성도들 사이에서 더 큰 존경을 받게 하시며,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

신실한 집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님에 의해 쓰인다. 그는 자기의 섬김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담대함도 획득한다.

이 복에는 ‘영적인 승진’의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 집사가 목사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은 교회와 목사에게 큰 기쁨이다. (신약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외부에서 수입된 인물이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초의 일곱 명 중에는 스테반과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의 집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기를 바란다.

목사는 직무 수행 전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집사로 선택되어 인정을 받으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집사에 대한 존중

집사 deacon은 직책을 말하지 호칭이 아니다.

김 집사님 대신,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김 형제님입니다.”

집사가 종신직이 아니므로 집사로 부르다가 그만 두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집사 직을 수행하는 형제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우리 교회 집사는 대부분 교회의 장로와 기능이 같다. 일반 교회 장로들에 대한 존중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다 보니 존중심이 많이 떨어진다.

폐단: 목사 말을 들어야 옳고 그름이 판명이 나지 집사나 집사회의 말은 듣지 않겠다.

“나도 형제, 그도 형제, 왜 내가 그분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다! 목사 집사 모두 지역 교회를 위해 하나님에 허락하신 직분이고 기능이 다르다.

형제자매들 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은 집사회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사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예수님과 그분의 몸 된 교회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인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인격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집사 등으로 섬기면 너무 좋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세상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도 쓰면 좋을 것이다.

결론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매우 엄숙한 일이다.

교회에는 목사, 집사 등의 공적인 직무 수행자가 있고 지역 인도자, 음악, 주방, 주차, 교회 학교 교사, 청소, 미디어 등 다양한 섬김 부서가 있다.

모두가 목사, 집사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섬김 사역을 맡은 분들이든, 그런 일을 맡지 않는 분들이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인지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딤전 강해 13
마지막 때 마귀의 교리들:
결혼 기피와 음식 문제

딤전4:1-6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교회와 목사가 전할 메시지 (1장)

- A.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 - 1:1-11
- B. 복음을 선포함 - 1:12-17
- C. 믿음을 수호함 - 1:18-20

II. 교회의 구성원들 (2-3장)

- A. 기도하는 남자들 - 2:1-8
- B. 복종하는 여자들 - 2:9-15
- C. 자격 있는 목사들 - 3:1-7
- D. 자격 있는 집사들 - 3:8-13

E.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진리는 예수님 성육신의 신비 - 3:14-16

지금까지 12시간에 걸쳐 1-3장을 강해함

4장부터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III. 교회와 그 사역자 (4장)

- A. 잘못된 교리들을 고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오늘 < > 목사가 회피하지 않고 선포해야 할 말씀 중 하나, 위어스비 참조

거짓 교사들의 출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직접 목회했던 교회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말함(행20:29-30)

그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을 경고했었다(사도행전 20:28-31). 그리고 5-6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실제로 그 교회에 나타났다. 성령님께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1절), 그 예언은 바울의 시대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서 늘 마지막 때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리스도 이후로 마지막 때(히1:1-2)

1절 문맥은 1. 바울 이후 디모데 시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일들

2. 또 동시에 예언의 이중성을 고려할 때 현시대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언

거짓 교사들의 특징

1. 그들은 사탄과 그의 마귀들로부터 힘을 받는다(1절 상반절).

목회 서신 가운데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언급되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은 루시퍼의 타락,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기록한다. 그 수는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

이들은 성경에서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 마귀들,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로 언급되며 사람들을 사탄에게로 이끄는 일을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마귀의 일,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4절: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일이 생긴다.

13-15절: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며(고린도후서 11:13-15), 자기 사역자들과 자기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려 한다(고린도후서 11:3).

그러므로 요일4:1, 6,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기 일을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한때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여 쓰러뜨리려 하였고 (마4장), 베드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 했으며(마태복음 16:21-23), 예루살렘 교회를 속이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용했다(사도행전 5장). 그래서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고후11: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2.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1절 하반절)

유혹하다: 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끌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끼어서 전전한 교리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교’이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와 더 긴밀히 연결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고, 자기 집단에 끌어들이며, 자기 프로그램을 확장하려 한다.

여기서 참된 교회와 이단 종파 집단의 차이가 드러난다. 참된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려 하지만, 이단 종파 집단은 (신천지처럼) 다른 곳에서 개종자들을 빼앗아 자기 지도자들의 종, 심지어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목사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자기 제자들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릭 워렌, 빌 하이블스,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슬러 등, 구도자 교회,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대로 무대를 꾸미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3. 그들은 위선자들이다(2절)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이것을 가르치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실행한다. 이것이 위선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크게 책망한 대상,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는 위선이다(신약 약 30구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15-20).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변질된 나무 변질된 열매

좋은 목사의 표지는 정직과 순전함이다.

정직: 그는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스스로 실천한다.

순전함: 죄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려는

진실한 태도를 뜻한다. 그는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애쓴다(딤전 1:5, 19), 순수한 양심; 3:9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켰다’는 말은 ‘양심이 마귀의 교리들로 지져져서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뜻한다.

낙인: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가축, 노예, 가구 등에 찍는 기구

사람의 살이 낙인이 찍혀 굳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양심도 무뎌질 수 있다.

우리가 입으로는 진리를 인정하면서 삶으로는 부인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조금씩 더 둔해진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말이나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마태복음 7:21-29).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3-5절)

1. 혼인을 금한다.

예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동방의 금욕주의를 가져와 결혼하지 않는 삶이 결혼하는 삶보다 더 영적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창세기 2:18). 예수님도 결혼을 승인하셨다(네 아버자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9:19). 바울 역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분명히 했다(고린도전서 7장).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고(마태복음 19:10-12) 바울도 혼자 사는 것이 '고유한 선물'이라고 가르쳤다(고전 7:7).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혼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간의 기본 의무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훼손하는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금욕주의는 천주교로 들어가 사제들, 수녀들, 수도사들의 독신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였다.

이것은 현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입한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건전한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동성애, 폐미니즘, 트랜스젠더, free sex, 다 결혼을 부인하는 것
지난 150년 정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서 거짓 교사들의 결혼 기피 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현상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고된 말세의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말(*) 2026년 1월 8일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라며 "한국은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한국 출산율은 인구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3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27분의 1, 그러니까 현재 인구의 3%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며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될 정도"라고 밝혔다.
젊은 분들은 결혼하는 데 신경을 쓰기 바란다.

2. 음식 문제

예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특정 음식이 부정하다고 가르쳤고, 그것을 먹으면 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좋다"고 하셨다(창 1장).

그들은 음식 규정을 정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얻었다.

특히 현시대 마지막 때에는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 해야 한다는 사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영성을 얻기 위해 채식을 강조하는 힌두교, 불교의 뉴에이지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음식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음식 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에 따라 발전해 가고 신약 성경이 종결되던 AD 90년에 확고하게 서서 변함이 없다.

1. 아담과 이브 시대: 채소류 채식(창세기 1장 29절)

2. 노아 홍수 이후: 육식 허용(창세기 9장 3-4절)

3. 모세 시대 유대인들: 돼지고기 금지 등 다양한 음식 규정(레 11장 4-8절 등 여러 곳)

4. 신약 바울 시대(이방인들의 시대): 음식의 제한이 없음, 딤전 4장 4- 5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따라서 채식과 육식, 혼합식 모두 가능하며 음식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음식 문제 폐단: 심지어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들이 되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고전8: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따라 채식, 육식, 혼합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노화 및 건강의 정도가 다르므로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음식의 기준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2026년 1월 8일 미국 식약청(FDA) 국장의 중대 발표, 로버트 캐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농무부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개정

현재 미국은 성인 70%가량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12~17세 사이 청소년도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에 있다.

해결책: '저지방'을 강조했던 과거 지침은 획기적으로 변했다. '전지 유제품(우유, 치즈, 요거트 등)'을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라며 하루 3회 섭취를 권장했다.

조리 시 올리브유, 그리고 버터

근육량 유지와 대사 건강을 위해 기존보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려야 한다.

특히 붉은 고기, 닭, 오리,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함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이 더욱 필요하다. 노아의 홍수 이후 허락됨

3.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경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의 "하라. 하지 말라"에 흔들리면 안 된다.

특정 음식을 영적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로마서 14장).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딤전4:5).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평범한 식사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만든다(고전10:31).

적어도 세끼 식사 기도는 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신자일 것이다.

선한 목사의 특징(6절)

목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씀 선포로 기억하게 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6절)

그리니까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시대별로 말씀을 구분하고 연구하여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딤후2:15

따라서 목사는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고 배우고 연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즉 목사도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리를 아는 일에 발전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라고 말한다.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교리, 기도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딤전 강해 14
좋은 목사의 특징:
목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딤전4:7-16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특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이 나온다.

그리고 딤전 4장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교회의 목사 (4장)

- A.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지난 시간, 딤전 4:1-6, 마지막 때에는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심. 이것은 마귀들과 유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는 이런 교리들을 격파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편견 없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시간 < > 목사도 그리스도의 양,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오늘 설교는 위어스비, 목회자의 목회자의 주석을 많이 참조함, 나에게 적용하며

목사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7-12)

목회 서신은 목사를 위한 서신, 바울은 젊고 경험 부족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명한다(7).

그러면서 운동 경기 선수를 예로 보여 준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운동선수는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며, 필요한 훈련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특히 목사는) ‘영적 훈련’을 실천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 쓴는 만큼의 에너지와 절제를 목사(그리스도인이)가 영적 삶에 쓴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이루게 된다.

세 가지 영적 수준

바울은 여기서 목사와 성도의 세 가지 영적 수준을 말한다.

1. 무익한 것: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는 수준”(7절 상반절).

속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말이다.

‘늙은 부녀들’은 특정 성별이나 노인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늙은 부녀들의 이야기”는 이미 굳어진 관용적 표현이었다.

즉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구전되던 미신 · 괴담 · 도덕 설화는 주로 노년의 여성들(할머니, 유모)을 통해 전달되었다.

속된 것들은 배교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전통을 가리킨다. 이런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논할 법한 그런 가르침이다. 분명 이것들은 이미 언급된 거짓 교리들(딤전 4:2-3)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딤후 4:4)을 경고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혓된 것들을 거부하라고 명령한다.

이미 바울은 6절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딤전 4:6 하, 직역)에 충실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두지 말라”(딤전 1:4)고 경고했다.

목회자는 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뉴에이지 기법 등, 만트라, 초월 명상, 관상 기도, 요가 등의 기법이 있다.

그런 기법들이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리는지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자신이 빠지면 안 된다.

2. 조금 유익한 것: 일시적이며 거의 유익이 없는 “육체의 훈련에 매진하는 수준”(7-8절). 이것 역시 운동 경기의 이미지다. 물론 우리는 몸을 돌봐야 하며 운동은 그 돌봄의 일부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하나님의 성전이며(고전 6:19-20), 그분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롬 12:1-2). 그러나 육체의 훈련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 생애 동안만 유익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경건이 아니라)은 지금과 영원에까지 유익하다.

3. 매우 유익한 것: 모든 일에 유익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수준, 하나님의 성품이란 한 마디로 성령님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영원하다(갈5:22-23),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4.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훈련이나 하나님의 성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둘 다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건강한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실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잘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5. 딤전 3장, 목사의 조건과 자격은 한 마디로 인품 혹은 인격이다.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설교 교사 필립스 브룩스는 “삶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그분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따른 행실은 골프 트로피나 홈런 기록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론 둘 다 가질 수도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 헌신하듯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헌신하라고 도전한다. 우리(목사든 성도든)는 영원을 위해 살고, 영원을 위해 수고한다.

영적 훈련의 유익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딤전1:15).

이것은 8절 말씀, 즉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이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 훈련을 통해 실천하고 삶에 적용해야만 한다. 그 이유가 바로 9절이다. 즉 8절 말씀은 “신실한 말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딤전 4:9). 이러한 “신실한 말들”은 초대교회가 불들었던 진리를 요약한 것이었다(딤전 1:15; 3:1; 딤후 2:11; 딤 3:8).

영적 훈련의 요소들(10-12)

1. 바울은 고전9장에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설명하고 24-27에서 여기와 비슷하게 운동 경기의 비유를 사용하여 경건한 삶에 필요한 절제를 강조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절제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몸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야 한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영적 훈련을 해야 함을 보게 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4).” 기도, 묵상, 자기 성찰, 교제, 섬김, 희생,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중언 —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빚는 데 도움을 준다.
2. 그런데 영적 훈련은 쉽지 않다. 우리는 “수고하며 치욕을 당한다”(딤전 4:10 상). 하나님의 성품 측면에서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지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심지어 치욕까지 당해야 한다. 중세 암흑 시대, 프랑스 왈도파, 영국 위클리프와 르라드, 체코의 얀 후수와 후스파, 그 뒤 재침례교도들, 성경 신자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치욕을 당하며 수고하였다.
3. 바울이 신뢰한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바울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다.
4.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의 바로 구원자이심을 상기시킨다(딤전 4:10).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심을 상기시킨다. 딤전3:16과 비슷한 구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보편구원론)가 아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분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덧붙인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다(엡 2:8-1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딤전 2:4),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딤전 2:6).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므로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수고하고 치욕도 받아야 한다.

5. 목사든 성도든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한다(11). 이것들은 7-9절 말씀.

명령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 “지시, 명령”을 뜻한다(딤전 1:3).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한 부대이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6. 디모데는 젊다는 이유로(12절) 명령들을 가르칠 것을 거부하면 안 되었다. 오히려 그는 군대의 소대장처럼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명령해야 했다(11절).

7.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딤전 4:10-12). 그것은 우리가 좋은 본이 되게 하여, 다른 이들을 격려한다. 바울은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여러 영역을 열거한다.

“말 면에서”(딤전 4:12)는 우리의 말이 항상 정직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함을 뜻한다.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엡 4:15) 것이다.

“행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디도서에서 바울이 묘사한 위선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딸1:16,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거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벼림받은 자들이니라.

“사랑 면에서”(아기페)는 삶의 동기를 가리킨다. 우리는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마 6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한다.

“영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내적 열정과 생기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영적 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말과 교제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 열심, 곧 하나님의 명예와 구원자의 영광, 그분의 복음과 진리와 규례들이 전파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참된 열심을 뜻한다.

“믿음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실함을 뜻한다. 참된 믿음은 항상 신실함으로 이어진다.

“순결 면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매우 중요하다. 에베소는 성적 부패의 중심지였고, 젊은 디모데는 많은 유혹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교회 안의 여성들과 정결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딤전 5:2), 마음과 생각과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했다.

성장하는 사역자, 말씀 안에서 성장함(4:13-16)

이 단락의 핵심 사상은 “네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딤전 4:15)이다. 여기서 진보하다는 말은 군사 용어로, “군대에서 맨 앞에 서는 군인들”을 뜻한다. 즉 부대 앞에 나아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이들이 뒤따를 수 있게 길을 여는 병사들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목사로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 교회가 그의 영적 진보를 보고 본받게 해야 했다.

인생의 법칙: 아무도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행 3:6)는 원리는 삶과 사역의 기본 원리다. 성장하지 않는 목회자(혹은 교인)는 사실상 뒤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체가 없다. 삶과 가르침과 설교와 인도 등에서, 목사는 영적 성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영적 진보의 요인들

1.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3절). 말씀 사역은 다른 일을 다 한 뒤에 하는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었다.

‘읽는 것’은 지역 교회 공예배에서의 성경 봉독을 의미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15절의 네가 진보하는 것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면하는 것’(딤전 4:13)은 문자적으로 “격려”를 뜻하며,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목회자는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적용해야 한다.

‘교리’는 “가르침”을 의미하며, 목회서신의 핵심 주제다. 이 열세 장 안에 “가르침” 혹은 “교리”에

대한 언급이 스무 번 이상 나온다.

목사의 자격 중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딤전 3:2)이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 성장하는 사역자(혹은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학생이어야 한다. 다른 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롬 2:21). 목사의 영적 성장은 양 떼에게 본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된다.

2. 자신의 영적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14절). 기존 성경에 은사로 번역된 말은 그리스어 카리스마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뜻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았고(롬 8:9), 성령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고전 12:1-11). 성령님의 선물과 선물은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전 12:13 이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를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실 때, 그 사역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도 한다. 디모데가 장로들에 의해 앤수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모데는 자신의 성장과 사역에 꼭 필요한 이 선물을 제대로 가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앤수함으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딤후 1:6)라고 권면한다.

물론 그것이 어떤 선물인지는 잘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신다. 우리 안에는 그분을 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전 15:9-10; 빌 4:13; 딤전 1:12).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꾸고, 사용하고,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두신 모든 자리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3.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라(15절). 이것들을 “묵상하라”, 이것들은 바울의 교훈들 혹은 13절의 말씀 내용, 그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해야 한다. 즉 “그것들 안에 거하라,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라”는 뜻을 포함한다. 디모데의 영적 삶과 사역은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중심이어야 했지 가끔 하는 부업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온전한 헌신 없이는 진영에서 앞장서는 군인이 될 수 없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취미 생활, 여가, 노후, 부동산, 시민 단체 활동 등에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목회를 신실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

4. 영적 점검을 해야 한다(16절).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바울이 “교리”보다 “너 자신”을 먼저 언급한 것을 주목하라.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각별 설교에서 같은 경고를 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행 20:28). 하나님의 좋은 다른 사람을 돋느라 자신과 자신의 영적 걸음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결론

나의 고백: 이것은 강해 설교이다. 담전3장에는 목사의 자격이 있고 4장은 좋은 목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보여 주고 영적으로 성정해야 함을 보여 준다.

오늘 강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모든 조건과 자격 갖추지 못했고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일에 심히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기 어려운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나도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삶이 설교를 따라가지 못해 사역을 떠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도덕적 문제, 이혼, 부끄러운 행실들이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구원받은 자를 세우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얻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빌 2:12-13). 선한 목사, 성도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안에서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한다.

딤전 강해 15
필립 얀시의 불륜:
교회, 목사, 성도의 돌봄의 의무

딤전5:1-16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특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이 나온다.

그리고 딤전 4장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지난 두 시간, 교회의 목사 (4장)

- A.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오늘 < >, 교회 안에 세워진 돌봄의 질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목사, 성도가 어떻게 사람을 돌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본문은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 설명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질서를 보여 준다.

딤전5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교회에 가르치라고.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 과부, 목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은 먼저 1-16절을 간략히 성경대로 강해하고, 2가지 중요한 토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교회 안에 세워진 돌봄의 질서(1-16)

1. 가족으로서의 교회(1-2)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목사의 힘든 직무 중 하나: 꾸짖는 것(Rebuke), 특히 연장자를 조언: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되, 온전히 순결하게 대하라고 말한다.

이 짧은 두 절 안에 교회 이해의 핵심이 들어 있다. 교회는 먼저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다. 직분보다 앞서는 것은 관계이며, 규칙보다 앞서는 것은 인격이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다(항상 예의 있게).

바울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 준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성적 경계와 순결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친밀함은 허용되지만, 무질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 사랑은 항상 순결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2. 참 과부인 자들(3-10)

이제 바울은 과부 문제를 다룬다(현시대 구제 문제). 당시 교회에는 과부들이 맡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집사들의 지도 아래 병든 자들과 연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 초기부터 이런 과부들을 돌보아 왔다.

바울도 분명히 말한다(3절). “참 과부인 자들을 존경하라.” 교회는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매우 분명한 선을 긋는다. 교회의 돌봄은 무분별한 구제가 아니다. 감정에 이끌린 궁휼이 아니라, 분별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과부인 자”의 조건을 제시한다.

돌봄의 기준: 꼭 과부가 아니라도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분들의 특징(5-6)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5-6),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이 기준은 교회의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기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상에게 집중해야 한다.

7절: 여기의 그들은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 1. 과부들(6), 2. 자식들, 3. 교회 직무 수행자들 2나 3이 맞을 것이다.

3: 8절의 핵심 선언: 이 단락의 중심에는 매우 무거운 선언이 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단순한 무책임이나 성품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신앙의 부정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역할보다 먼저,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분명히 세운다.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는 말씀이다.

4. 또 하나의 기준(9-10절), 구제의 기준: “한 남자의 아내”였어야 하고, 가정을 잘 돌보았으며, 환대와 자선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운다. 과거에 넉넉할 때 선한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궁핍에 빠졌을 때, 그들을 특별히 돌보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는 그를 도와야 한다. 곤경 중에 궁휼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편이 좋을 때 궁휼을 베풀어야 한다.

5. 11-15절: 젊은 과부에 대한 지혜(읽고)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목회적인 사람임을 본다.

선의로 도우려다 보면, 오히려 죄를 키울 수도 있다. 충분한 책임과 역할 없이 지속적인 도움만 줄 때, 계으름이 생기고, 쓸데없는 말과 방황이 생길 수 있다. 바울은 이런 위험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교회는 선해야 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된다. 궁휼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12절: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책감을 얻는다. 처음 믿음: 5:5, 굳건한 믿음, 세상을 향해 죽어 있음, 하나님만 의지함 등

13절: 자매님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고 떠나는 분들도 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떠나는 분들 중 13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본다. 참 힘든 일이다. 특히 자매님들 핵심: 자기는 의롭고 교회의 나머지는 의롭지 않다. 다시 읽자.

교회를 떠날 때의 예절: 교회에 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믿음 생활, 성화의 일부분 크리스천으로서 신사답게 해야 한다. (*) 2018년 교회를 떠날 때 예절: 나의 예

5. 16절: 구제의 핵심 원리 요약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믿는 과부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 먼저 돌보라.

그래야 교회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다.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다. 그러나 이 질서가 지켜질 때, 교회는 약자를 돌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필립 얀시의 불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은 단지 1세기 에베소 교회의 행정 지침이 아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교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의 원리가 담겨 있다.”

2저리 목사(모든 남자들)와 젊은 여인 문제

2026년 1월 6일, 필립 얀시(1949)의 불륜 고백 이메일(*)

기독교 저자 필립 얀시(Philip Yancey)는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T)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자신이 기혼 여성과 8년 동안 불륜 관계를 맺어 월음을 고백하며, 글쓰기와 강연 활동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얀시는 1971년(22세)부터 수십 년 동안 CT에 기고했으며,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후 정기 칼럼ニ스트와 편집 고문(editor at large)을 맡았다.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를 포함한

그의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그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신앙에 대해 자주 글을 써 왔다.

얀시: Yes24 저자 평: 기독교 대학인 휘튼 칼리지 졸업. 예리한 관찰력과 필력을 지닌 작가로, 무엇보다 그의 저술에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특히 그의 글은 경계선 신자들, 회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들을 잘 헤아리며,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IVP),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생명의말씀사),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상 IVP),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포이에마)와 같은 책을 저술했다. 미국 ECPA(복음주의출판협의회)에서 골드메달리언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그의 책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총 1,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어 사랑받고 있다.

현재 76세인 얀시는 아내 재닛 얀시(Janet Yancey)와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왔다.

“나의 큰 수치로 인해 고백한다. 나는 8년 동안 기혼 여성과의 죄악된 불륜 관계에 고의적으로 관여했다. 나의 행동은 결혼에 대해 내가 믿어 온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신앙과 내가 써 온 글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남편과 양쪽 가족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고, 전문 상담과 책임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헌신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으며, 내가 초래한 파괴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있다. 나의 행동이 이전에 나의 글을 신뢰해 왔던 독자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죄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가져왔다. 나는 깊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궁휼과 은혜 외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제 나는 5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 사역에서 자격을 상실한 자로 여기며, 이에 따라 글쓰기, 강연,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은퇴한다. 대신, 남은 생애를 내가 이미 써 놓은 말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내가 상처 입힌 이들의 삶에 치유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또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한다.”

얀시는 아내의 성명도 함께 전했다.

“나 재닛 얀시는 배신을 겪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황폐함 속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55년 반 전에 거룩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죄들, 필립의 죄까지도 대속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이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도 말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얀시는 2023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 질병이 자신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과정과, 아내가 돌봄의 여정을 준비해 온 이야기를 CT에 기고한 바 있다.

현재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들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충고(5:2),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사실 이 말씀은 젊은 목사, 나이든 목사, 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매님들도 조심해야 한다.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에 일어날 수 있다. 그의 가족 특히 아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고전10:11-12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5:4, 8, 16)

오늘 우리는 현시대를 살아가며 점점 더 자주 마주하는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바로 연로한 부모를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를 돌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개인의 삶은 더 바빠졌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책임은 제도와 사회로 이전되었다. 요양원, 복지 시설, 국가 제도가 자연스러운 대안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문제는 이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매우 단호한 말을 한다.

1. 자식들과 손자들이 효성을 보여야 한다. (5:4)
2.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은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 (5:8)
3. 교회가 아니라 자식들이 돌보아야 한다 (5:16)

바울은 예둘러 말하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문제를 선택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다룬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문제로 다룬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형편이 안 된다.” “여건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들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기준을 분명히 세운다. 그런 말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은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강함이 이 말씀의 의도다. 바울은 부모 돌봄을 불신자도 알고 있는 도덕의 기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한다. 신앙은 세상의 윤리보다 낫을 수 없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신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출20:12)

이 명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명령들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문제 이전에, 가정의 질서를 먼저 세우신다.

사도 바울도 예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명령을 다시 인용하며 말한다.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 일이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달린 명령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다루신다.

마가복음 7장 9-1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책망하신다.

그들은 부모를 돋기 위해 써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적인 부모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7:13, 9)

부모를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 혹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헌금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교회 봉사의 다음 단계가 아니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먼저 증명되지 않는다. 신앙은 가정에서 먼저 증명된다.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외면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울은 이것을 윤리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믿음의 부인으로 본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 안에서 먼저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사랑의 옵션이 아니다. 신앙의 증거다.

부모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과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딤전 강해 15
목사의 대우 문제: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의 조언

딤전5:17-25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특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이 나온다.

그리고 딤전 4장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지난 두 시간, 교회의 목사 (4장)

- A.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지난 시간 딤전5:1-16, 교회, 목사, 성도의 인간적 돌봄의 의무

오늘 < >,

딤전 3장, 4장 목사의 인격, 자격, 조건 등 목사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들

오늘 딤전5:17-25에는 자격을 갖춘 목사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참 이것은 목사로서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강해 설교이므로 나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달하려고 한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강해가 되지 않도록 일단 17-25절을 매튜 헨리의 주석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매튜 헨리(1662-1714):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교도 계열 성경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성공회 국교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청교도 · 비국교도 전통 속에서 자랐고, 국가 교회 중심 구조가 아닌 성경 중심 · 양심 중심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는 그의 주석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다.

매튜 헨리의 주석은 단순한 학문적 해설서가 아니라, 목회적 · 경건적 주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① 신학보다 본문 중심

원어 분석보다 성경 문맥과 교리적 일관성을 중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식(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② 목회적 적용이 강함

모든 본문을 삶 · 가정 · 교회 · 양심에 적용

“이 말씀이 오늘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집중

매튜 헨리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적 상식, 인간 본성과 교회의 약함을 정확히 깨뚫는 통찰

은혜와 책임을 동시에 불드는 균형,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주석

그의 주석은 학자보다 설교자, 강단보다 양심, 제도보다 말씀을 중시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등은 걸러서 보기 바란다.

매튜 헨리의 딤전5:16-27절 주석

I. 목회자의 부양에 관하여(17-18)

목회자가 존중을 받으며 유지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여기서 ‘두 배나 존경’이란 곧 두 배가 되는 부양을 뜻한다. 이전에 받던 것보다 두 배이거나, 보통 목사들 혹은 다른 목사들이 받는 것보다 두 배라는 의미다. 특히 말씀과 교리로 더 많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앞뒤 문맥이 이를 확증한다: 위어스비, 반즈 등 동일한 해석,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배 존경의 존경은 3절 참 과부들을 존경하라는 말의 존경과 같다. 3절 존경은 부양하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받아서 교회에 가르쳐야 한다. 당시 초대 교회 초반부에는 감독, 장로, 목사는 동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 교회 시대 초기에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복수의 장로들이 다스리고 가르쳤다. 유대인 중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되면서 지역 교회는 감독, 즉 목사와 집사들로 구성됨, 성경은 단수 복수 목사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매튜 헨리의 말: 주목할 점은, 장로들이 다스렸고, 다스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이는 설교만 하고 다른 이는 다스리기만 하는 식이 아니었고, 한 사람이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 대단히 중요한 점

그래서 가르치지는 않고 다스리는 일만 잘하는 장로(목사)들만 ‘두 배나 존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는 것은 이상하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침례보다 더 우선시했고, 하물며 교회를 다스리는 일보다도 설교를 더 중하게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는 설교하는 이와 다스리는 이가 따로 있지 않았고, 다스림과 가르침은 같은 사람들이 수행했다. 다만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말씀과 교리로 더 많이 수고했고 그들을 더 존중해 여기하고 바울은 말한다.

즉 목사의 일은 주로 두 가지다. 곧 잘 다스리는 것과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시대 장로들, 곧 장로직의 핵심 사역이었고 현시대 목사들의 핵심 사역이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한 이들에게 교회는 마땅히 두 배나 존경을 표해야 한다. 즉 그들은 두 배나 존경, 곧 존중과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도는 목사들의 부양에 관한 이 명령을 확증하기 위해, 얼핏 보면 무관해 보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18절). 이는 모세 율법의 여러 규례들, 특히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신 25:4)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보여 준다. 구약 시대에는 타작 대신 소로 곡식을 밟아 껍질을 벗겼는데, 그 소들은 일하는 동안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일할수록 더 먹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도 일을 열심히 할 수록 더 넉넉히 공급받아야 한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마 10:10)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배운다.

- (1)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도, 복음 아래서도, 자신의 일꾼들이 육신의 필요들을 잘 공급받도록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소를 돌보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종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소는 썩을 빵이 되는 곡식을 밟지만, 사역자들은 영원히 남는 생명의 빵을 나눈다.
- (2) 교회 사역자들의 넉넉한 생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또한 정당한 권리다. 바울의 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고전 9:14), 따라서 교회가 넉넉히 제공하는 것은 일꾼의 품삯과 같다. 사역자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고발에 관하여(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19절). 이는 목사가 어떤 죄로 고발될 때 적용해야 할 성경적 절차다.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한다. 떠도는 소문이나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담은 고발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즉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게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종교 재판식 관행과 달라야 한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먼저 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고발은 신뢰할 만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이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또한 고발은 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고발자는 고발자들을 대면해야 한다. 사역자의 명성은 특별히 섬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명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일이 있기 전에, 제기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매우 신중히 살펴야 한다.

전10:1,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20)

고발자든 피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뜻이다. 상처가 넓으면 약도 넓게 발라야 하며, 이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죄에 빠질 위험에 있는 다른 이들이 그 책망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본다.

- (1)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죄인은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한다. 죄가 공개적이었다면 책망도 공개적으로
- (2) 공개적 책망은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율법 아래서도 공적인 범죄자에게 공개적인 형벌을 가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

사역자의 안수에 관하여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22절). 이는 사역자를 임명하는 일에 적용된다. 충분한 검증 없이, 은사와 은혜, 능력과 자격을 살피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초신자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사면(해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 즉, 교회의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너무 서둘러 손을 얹지 말고, 회개의 진정성이 충분히 입증될 시간을 두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게 된다. 교회의 징계를 너무 쉽게 풀어 주는 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며, 그 죄에 스스로 연루되는 일이 된다.

- ① 문맥 연결: 19-20절: 장로 고발과 공개 책망, 21절: 편파성 없이 판단, 22절: 성급함 경고 24-25절: 죄와 회개의 드러남, → 전부 ‘교회 권징과 판단’의 흐름이다.
 - ②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22)
이 말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을 안수했을 때만 해당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은 자를 선불리 용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③ 초대 교회의 실제 관행: 회복은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 인정 행위였고 거기에는 안수 · 기도 · 공적 선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 교훈: 사역자의 성급한 안수나, 징계를 받은 자의 성급한 사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일다(22)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순결하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계와 노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사면에 관하여 (24-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른다.”(24)
목회자들에게는 다양한 죄와 죄인을 다루는 데 큰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너무 분명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도 교회의 징계 대상이 된다. 이런 죄들은 심판으로 앞서 간다. 반면 어떤 죄들은 철저한 조사 이후에야 드러난다.

회개의 증거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25)

그러므로 누가 사면을 받아야 하고 누가 받아서는 안 되는지는 결국 분명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본다.

죄에는 은밀한 죄와 드러난 죄가 있다. 교회는 죄인들을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교회 징계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징계를 통해 겸손해지고 회개하여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

고칠 수 없는 자는 결국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숨은 것들을 밝히시고 모든 마음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 자신에 관하여

직무에 대한 엄숙한 명령이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21절).

목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세속적인 이유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반드시 회개보고 해야 한다. 세속적

인 계산으로 편파적으로 사역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건강에 대한 권면이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잣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23절)

디모데는 감각적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체질도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위장과 잣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고 권한다. 어쩌면 그는 모든 포도를 금하는 나사르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심지어 포도즙도 먹지 않고.

그의 건강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마시라.

포도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매튜 헨리도. 그러나 포도주가 위장과 병에 좋은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이 딥전3:3, 목사는 자기를 순에 내주지 않아야 한다. 여기의 술도 원래는 포도주이다.

감독 목사의 자격은 술과 별별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포도즙이 맞을 것으로 보고 또 좋은 포도 주스는 위장을 강하게 한다는 보고도 있다.

교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적절히 돌보기를 원하신다. 몸을 주인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노예처럼 혹사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목사의 대우(사례)

내가 교회를 (2008년부터 2026년까지)18년 하면서 느낀 것

목사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 사례비 후생 복지 문제, 또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이 문제이다. 성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고 목사에게도 있다.

대다수 성도들의 트라우마: 대형 교회 목사들의 비리, 독재, 공금 횡령 등 신문 기사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런 특혜 목사는 전체 목사의 1%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목회자들 소득이 낮은 편임

1. 한국 목회자 월 평균 사례비는 216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사례비 외 기타소득을 합친 총소득은 약 30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6% 수준이다.

특히 교인 49명 이하 소형 교회 담임목사는 월 평균 153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다.

이는 교회 절반 이상이 소형 교회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목회자가 저소득층에 속함을 시사한다.

2. 부목사 사례비 현실: 업무량이 많은데도 사례비가 너무 적다

부목사 월 평균 사례비는 약 260만 원대이며, 작은 교회일수록 적은 사례비를 받는 경향이 있다.

3. 한국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보다 낮다는 연구

→ 한국 현실에서는 많은 목회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증적 통계가 있다.

가장 큰 고민, 성장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목회자 10명 중 6명, ‘자녀가 목회자 되는 것 원치 않는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목사도 사람이다(지미 도드, 래리 맥누선),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목사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들, 하지만 집사든 성도든 교회를 섬기며 목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다. 결국 목사들도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목회자 치우(2023년 4월 9일)

결론

“성경은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역을 교회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사역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사역을 존중하도록 주신 질서의 말씀이다.”

목회자의 교육, 나이, 경력, 기여 등을 고려해서 교회는(집사회)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목사, 교회 직원들의 사례비, 후생 복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는 두 배나 존중히 여겨야 한다.

또 성도들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목사의 인격과 일을 망치는 데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회계 보고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목사든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리더든 성도든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교회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 교회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하다.

딤전 강해 17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번영 복음, 기복 신앙, 오순절 신비주의

딤전6:1-10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편지의 목적: 딤전3:15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목사, 집사, 교회의 연장자들과 젊은 사람들 대하기, 또 과부들을 포함해서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등을 다 설명함

오늘 < >

디모데전서 6장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다.

돈 이야기, 사회 구조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 안의 거짓된 동기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다.

왜? 돈과 신앙의 문제가 교회 혹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은 겉으로 보기에도 종과 주인의 문제, 부와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신앙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장을 읽을 때, 본문은 단순한 윤리 지침을 넘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강력한 경고로 다가온다.

주인과 종 문제(1-2)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소유인 노예를 말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예였다고 추정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을 받았고 교양도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사회적·법적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계층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고 그 결과 많은 노예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

노예 성도들은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마다 지역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교제했는데, 그곳에서는 노예라는 신분이 장애가 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무너졌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졌다(갈 3:28).

복음은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 교회의 지체였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노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자유를 평계로 삼아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대항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영적 자유가 곧바로 사회적 신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5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자유는 사람의 내적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바꾸지만, 사회적 위치를 즉시 지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예 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부패, 탐욕으로 인해 수천 년간 이어져옴

복음이 들어가서 이것을 몰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림, 역사는 1800-1900년이 걸림을 보임

1. 믿지 않는 주인을 둔 노예들(1절)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인식하고 믿지 않는 주인에게 종이 대항하면 심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러한 반항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복음 전체에 수치를 가져올 위협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된다(롬 2:24).

만일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이 사회 제도를 전복하는 구호를 앞세웠다면, 교회는 즉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집단으로 낙인찍혔을 것이고, 복음의 진전은 심각하게 방해받았을 것이다.

2. 믿는 주인을 둔 노예들 (2절)

그러나 주인이 믿는 자일 경우에는 또 다른 위협이 있었다. 믿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믿는 형제라는 이유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주인은 내 형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면, 그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즉 5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생각은 곁으로는 복음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믿는 주인을 더욱 존중하고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이 형제 됨은 영적인 특권과 관련된 것이지, 외적인 지위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신앙을 평계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부정하는 자들은 종교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인들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순종을 통해 주인과 종 모두가 복음의 유익을 얻기 때문이다.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느 한쪽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섬길 때, 그 관계는 착취의 구조가 아니라 상호간의 복의 통로가 된다.

2절 끝: 디모데는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임명되었다.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의무들만 설교해서는 안 되며, 각기 다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의무들 또한 선포해야 한다.

다른 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3-5)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했고(딤전 1:3 이하), 그들의 위험한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딤전 4:1 이하). 여기서도 거짓 교사가 등장한다(3).

바울은 3절에서 ‘다른 식의 가르침 혹은 교리’를 언급한다.

무심코 보면 1-2절과 3-10절이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1-10절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느냐, 혹은 영광을 받느냐에 대한 것이다.

1-2절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3-10절: 이렇게 가르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리는 복음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가르침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거짓 교리들의 특징:

1. 거짓 교리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딤전 6:3). 온전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낳는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딤후 1:13).
2. 거짓 교리의 구체적인 특징은 교만이다(4). 곁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말다툼과 논쟁을 즐긴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기보다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결과는 언제나 같다. 시기, 다툼, 비방, 욕설, 악한 추측, 끊임없는 마찰이다.
3. 바울은 이 모든 왜곡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짚뚫는다(5).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즉 신앙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긴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이득 혹은 자기 성취로 이동한 것이다. 이 경우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4. 대표적인 사례 신약의 가룟 유다, 구약의 발람(민22-24장)은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보상에 기울어 있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한 채 파멸로 향했다.

왜 바울은 이 문제를 편지의 마지막에 두었는가?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교회의 구조를 세운다. 직분자의 자격, 말씀 사역자의 삶,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차근차근 다룬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문제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신앙은 단순히 이런 구조로만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교리를 고백할 수 있다. 제도를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이 걸리는 순간, 신앙의 진짜 주인이 드러난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마6:24)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 성도들의 심장을 진단한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현신인가, 아니면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였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다.

참된 이득에 대한 성경적 정의(6-8)

바울은 신앙생활의 ‘이익’ 혹은 ‘이득’을 성경적으로 정의한다.

6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신앙생활이 큰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7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의 계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언이다.

광야의 만나는 같은 교훈을 준다.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고, 더 쌓으려는 마음은 불순종으로 드러났다.

이런 만족의 결과가 8절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여기서 만족함은 가난을 미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셨다는 신앙 고백이다. 빌4:12-13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끄는 종착지(9-10)

9절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8절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중요한 사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다윗 등 부자도 많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탐욕을 부리며 부를 추구하려 하면 반드시 폐망함을 보여 준다.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며, 해로운 욕심을 통해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 이유가 10절이다. 무서운 말: 믿음에서 떠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한 결과다.

현 시대 적용

바울이 경고한 문제는 1세기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교회의 외형이 커지고, 자유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정교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왔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이 구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되살아나 있다.

1. 기복 신앙: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단순화

샤머니즘 기복 신앙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진 형태다. 이 신앙은 말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겉으로 들으면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발생한다.

기복 신앙 안에서는 신앙의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떤 복(이득)을 주는가?”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신앙은 즉시 흔들린다(마 13:22,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안정과 형통이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신앙은 이미 방향을 잃는다.

2. 번영 복음: 신앙은 성공을 끌어오는 기술이 된다

번영 복음은 기복 신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여기서는 복이 법칙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잘된다”, “현금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 “긍정 선언이 현실을 바꾼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이 구조에서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신앙은 결과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된다. 하나님은 자기 성취의 공식이 된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10).

번영 복음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곁으로는 신앙이 유지되지만, 중심은 이미 재물과 성공으로 옮겨진다.

3. 목적 중심 신앙: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목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 안에서 목적이라는 개념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 자기실현을 돋는 언어로 사용된다.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힘으로 이해된다.

4. 구도자 중심 교회: 불편한 진리는 제거된다

구도자 중심 모델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데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진리들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죄, 회개, 자기 부인, 십자가의 대가는 불편하다. 대신 위로, 공감, 실용적 조언이 중심이 된다.

구도자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수단이 된다. 숫자와 영향력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깊이보다 반응의 크기가 중요해진다. 그러면 말다툼과 분열, 헛된 논쟁이 생겨난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5. 오순절 신비주의: 능력과 체험이 신앙의 척도가 될 때

신비주의적 흐름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강조된다. 그러나 능력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체험이 없는 성도는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모두 방언해야 한다. 뒤로 쓰러져야 한다. No!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능력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평가한다(6).

신앙이 하나님을 불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경건이다.

결론

바울이 경고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는 순간을 경고한다. 하나님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을 보라

예수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눅22:42)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꿈을 실현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설 때, 우리는 다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11절)

딤전 강해 1부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법
교회와 목사의 생존전략

딤전6:11-19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딤전3:15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글로 기록함. 3-5장 교회의 구조, 직분자, 사명 등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 이야기, 사회 구조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의 거짓된 동기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다.

그러나 편지의 결론이니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0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었다. 하나는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복음의 명예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이어서 바울은 곧바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자기 성취나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고 복음을 돈과 결합시켜 교회를 병들게 했다.

교훈: “신앙이, 하나님아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

오늘 < >,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를 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목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

11-19절이 나오는 이유

디모데전서 6장 11-19절은 앞부분과 별개의 주제가 아니다.

바울은 6장 1-10절에서 교회 안의 병을 진단하고, 11-19절에서 그 병을 이길 처방을 제시한다.

앞부분은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뒷부분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11-19절은 덧붙임이 아니라 결론이며, 경고의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명령이다.

이번 시간은 이런 대조를 통해 말씀을 강해하려 한다.

1. 11절의 “그러나 오 하나님아 사람아, 너는”은 글의 방향을 돌리는 공식이다

바울은 1-10절에서 거짓 교사들, 즉 마음이 부패한 자들, 신앙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불잡힌 자들에 대해 말한다.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매우 냉정하게 해부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갑자기 “그러나 오 하나님아 사람아, 너는”이라고 말하며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화제 전환이 아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비를 세우는 문장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즉, 바울은 거짓 교리들로 인한 교회의 문제를 말한 뒤에, 곧바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워 그 문제와 맞서게 한다. 거짓 교리를 물리치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다운 삶을 지속함으로써 거짓의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이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러나 오 하나님아 사람아, 너는”으로 진단에서 처방으로 옮겨 간다. 이때 처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격이고, 제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2. 앞부분은 “거짓 신앙생활 혹은 믿음”을 드러내고, 뒷부분은 “참된신앙 생활 혹은 믿음”을 제시한다.

1-10절에서 바울이 겨냥한 핵심은 “신앙생활 = 이득의 수단”이라는 구조다. 여기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외형적 신앙의 포장을 뜻한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교만”, “무지”, “논쟁, 말다툼”,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낸다. 5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그들의 문제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동기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질문이 남는다.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 답이 11-19절에 나온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씩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11-12절),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불들라.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라, 죄와 거짓을 피하고 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인격적 삶이다.

따라서 1-10절만 설명하면 “하지 말라”로 끝나고 성도는 결국 공허해진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그러나 너는”으로 넘어가 참된 신앙생활의 내용을 채워 넣는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11-19절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3. 1-2절의 ‘관계 윤리’와 11-12절의 ‘인격 명령’은 한 줄로 연결된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한다. 곁으로는 사회 구조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 기독교는 사회 구조를 즉시 바꾸지 않지만, 구조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종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바울은 이 원리를 목사인 디모데에게 적용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말과 가르침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다. 종이 사회의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면, 목회자는 더더욱 목회하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야 한다. 사회 관계의 질서를 말한 뒤, 바울은 곧바로 목회자의 인격과 싸움으로 이것을 끌고 들어간다. 왜?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결국 지도자의 인격에서 무너지고, 지도자의 인격에서 세워지기 때문이다.

4) 3-10절의 ‘거짓 교사’와 11-16절의 ‘목회자’ 대비를 보라.

거짓 교사들은 교리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논쟁과 분열, 탐욕의 구조로 설명한다.

따라서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목사는 거짓 교사와 같은 길에 자신도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만, 논쟁, 돈, 사람의 인정, 자리, 영향력은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목사에게도 유혹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 개인을 불들고 말한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단지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진 죄의 원리, 곧 탐욕과 교만과 분쟁의 체질을 네 안에서 끊어 내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11-16절은 ‘거짓 교사’를 대적하기 위한 ‘목회자 개인의 영적 경계령’이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경고를 주고 뒷부분에서는 목회자가 실제로 실행할 삶의 태도를 제공한다. 경고만으로는 교회가 보호되지 않는다. 경고가 목회자의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교회가 보호된다.

5) 17-19절은 9-10절의 균형을 잡아 주는 ‘완성의 말씀’이다

9-10절에서 바울은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면으로 경고한다. 이것만 읽으면 어떤 사람은 “그럼 돈은 악인가? 부자는 다 문제인가?”라는 오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17-19절에서 균형을 준다. 문제는 돈의 존재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만 의지하면 파멸로 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돈)를 선한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쌓는 도구가 된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나누라,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즉 17-19절은 9-10절의 경고를 ‘균형 있게 보완’한다. 바울은 교회를 극단으로 몰지 않는다.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돈 자체를 악으로 단정하여 성도를 비현실로 몰아넣는 것도 문제다. 17-19절은 성도가 현실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참된 경건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11-19절은 1-10절이 던진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이다.

6) 신학적으로, 11-19절은 “교회의 생존 방식”을 제시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압력을 받는다. 그 압력은 박해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다. 박해는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하지만, 세속적 욕망은 교회를 내부에서 변질시킨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위험 앞에 서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말한다.

교회를 지키는 길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싸울 것은 싸워서 지키고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재물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재물을 나눔과 선행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생존 방식이며, 교회의 승리 방식이다.

11-19절 상세 강해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앞선 사람들과의 의도적인 대비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말했지만, 이제 시선을 교회 전체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로 돌린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한 사람의 타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도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11-19절은 앞선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은 더 정교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싸움이다.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11-16절).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붙들라

이것은 목회자의 일상적 자세이자,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 전쟁의 방식이다.

1. 피하라: 도망하라 – 떠남의 용기(1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6:3-10절에 열거된 거짓 교리, 왜곡된 신앙 생활, 탐욕의 구조 전체를 말한다.

바울은 6장 5절에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권면하였고 다시 여기서 다시 반복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리와 경건하지 않은 관행 앞에서 분명히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단, 이것은 성경적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

2. 추구하라 –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11절)

도망만 하면 고립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동시에 “추구하라”고 말한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의는 인격의 정직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은 확신 혹은 신실함을 말한다. 사랑은 얻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다. 인내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지속성이다. 온유란 절제된 힘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싸우라 – 선한 싸움 (12-16절)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계속 싸우라”는 뜻이다.

이 싸움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둘러싼 죄와 거짓,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적과의 싸움이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기록했다(딤후 4:7).

4.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12절).

첫째,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붙잡아 실제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셋째,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

5. 또 이 싸움을 위한 큰 격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고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임을 알고 계셨다. 이 사실이 디모데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된다.

6. 바울은 13절에서 군대 용어를 사용해 “내가 네게 명한다”고 말한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사명을 보고해야 한다.

7. 그래서 14절의 명령은 분명하다. 점도 없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불를라)을 지키라는 것이다.

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한 장엄한 고백 (15-16절)

바울은 여기서 시선을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린다.

15-16절의 그분은 14절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15절). 자신의 때에 오신다.

15절: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권능자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16절: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불멸하신 분이시다. 인간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지금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불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6절: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야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그분을 보았고(창 32:30),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도록 허락받았다(출 33:18-23).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요 1:18)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곧 그분의 영적 실체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

16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장엄한 신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디모데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19절: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과 최종 결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라고 한다. 이것은 부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부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결론

딤전 6장 1-10절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면, 11-19절은 교회를 살리는 길을 보여 준다.

그 길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불들고 있는가.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불들라.”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